

M 45-89 | 2008. 1 |

제 89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8. 1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농업·농정 동향

EU, 공동농업정책(CAP) 예산 변화	3
EU, 유기농업유형 개황	11
EU, 곡물 수입관세 부과 한시적 중단	21
일본,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 발표	24
호주, 2008년도 세계 및 호주경제 전망	33
세계 육류시장 동향 및 2008년 전망	47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8년 1월 농업협상 동향	63
OECD, 최근 논의동향과 2008년 전망	75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8. 1)	85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8. 1)	98

통계자료

세계 쇠고기 통계	107
-----------------	-----



농업·농정 동향

EU, 공동농업정책(CAP) 예산 변화
EU, 유기농업유형 개황
EU, 곡물 수입관세 부과 한시적 중단
일본,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 발표
호주, 2008년도 세계 및 호주경제 전망
세계 육류시장 동향 및 2008년 전망

EU, 공동농업정책(CAP) 예산 변화

임 송 수*

1. CAP 자금구조의 변화

유럽연합(EU)은 1962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농업 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으로 공동농업정책(CAP)에 들어가는 자금을 충당하였다. EAGGF는 1964년에 보증 부문(Guarantee Section)과 지도 부문(Guidance Section)으로 나뉘었으며, 시장과 가격조치, 수출보조와 같은 정책을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는 2005년에 합의한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든 ‘유럽농업 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과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EAFRD)’ 규정에 맞추어 CAP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변화가 큰 농촌개발에 배분되는 자금의 흐름 체제를 2000~06년과 2007~13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¹⁾ 2006년까지는 EAGGF 보증 부문에서 일부가 자금전환과 회원국의 자금 분담으로 말미암아 지도 부문으로 전이되었다.²⁾ 농업정책 이외에도 구조정책을 통한 농촌개발 지원이 있는데, 목표 1지역, 목표 2지역, 기타 구조 조치, 지역사회 주도 조치, 혁신 조치와 기술지원을 포함한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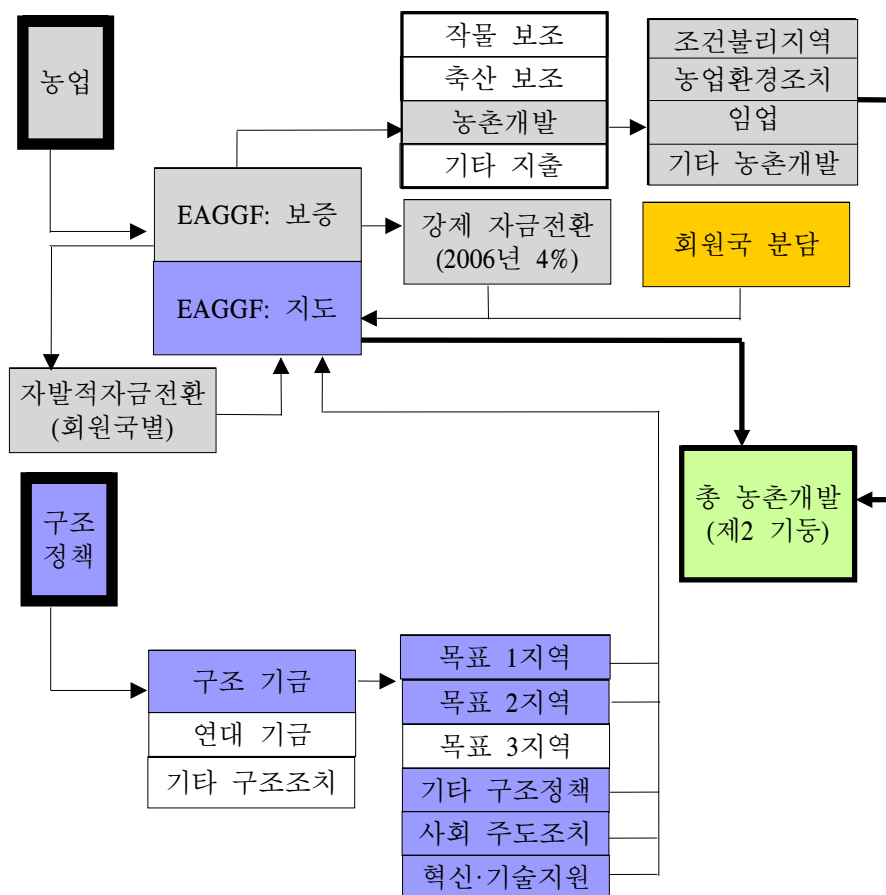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soo@krei.re.kr 02-3299-4382

1) CAP 예산은 보통 7년 단위로 설정한다.

2) 자금전환(modulation)은 농촌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지불 일부를 강제로 각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EU 농촌개발 자금의 흐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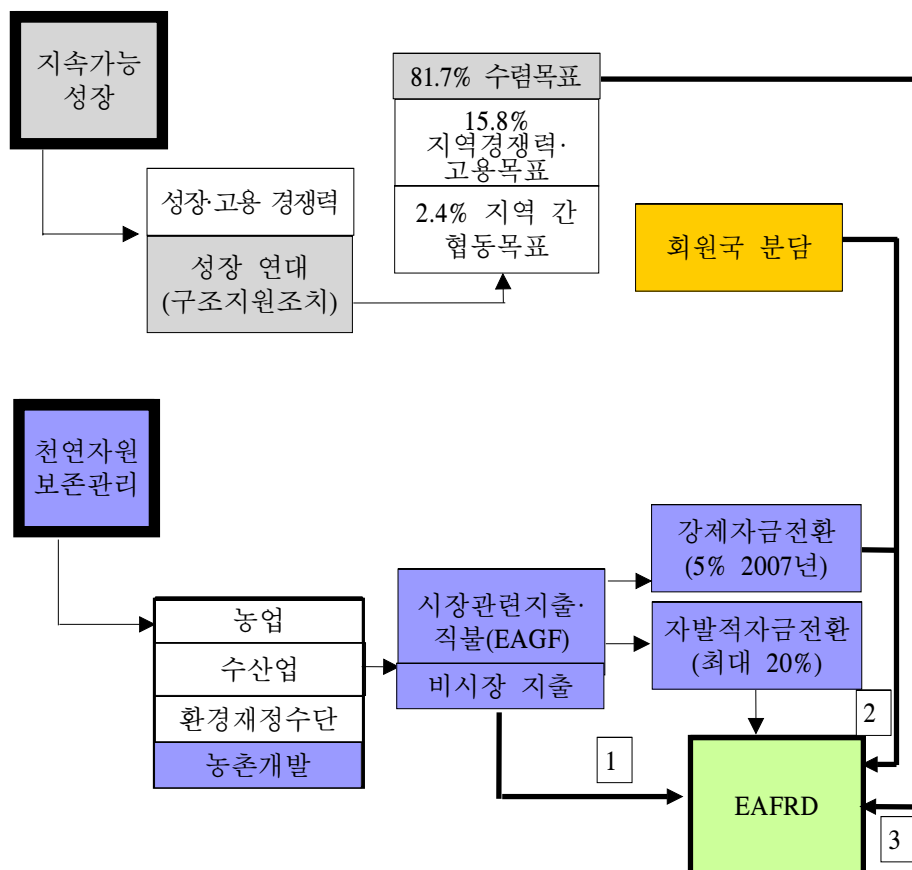
<2000~06년>



- 3) 2000~06년에 EU 정책에 대한 자금 배정은 8개 '표제(heading)'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농업, ② 구조정책, ③ 국내정책, ④ 대외조치, ⑤ 행정 지출, ⑥ 준비금, ⑦ 회원국 가입 전략, ⑧ 보상이다.
- 4) 목표 1지역(Objective 1 region)은 1인당 평균 GDP가 EU 평균의 75% 미만이 저개발 지역을 말한다. 구조자금의 2/3 정도가 이 지역의 개발과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EU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관련 조치의 영향을 받았다. 목표 2지역은 경제변화, 농촌인구 감소, 수산업 의존 취약지역, 도시 빈곤지역처럼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다각화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목표 3지역은 고용과 같은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림 1 계속)

<2007~13년>



자료: Leishman(2007) <<http://www.fas.usda.gov/gainfiles/200708/146292092.pdf>>

2000~06년 농촌개발은 ① 보증 부문, ② 목표 2지역 보증 부문, ③ 신규회원국 보증 부문, ④ 목표 1지역 지도 부문, ⑤ 지도 부문과 LEADER+의 5개 프로그램과, ① 보증 부문, ② 신규회원국 보증 부문, ③ 지도 부문의 3개 재정관리 통제체계 아래 지원되었다.

2007~13년 농촌개발 조치는 EAFRD의 단일기금 하에 이행되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과 재정관리 통제체계로써 농촌개발 정책 이행을 단순화한 것이다. EAFRD

는 주로 표제(Heading) 2인 ‘천연자원 보존과 관리’ 가운데 비시장 지출(non-market related expenditure)에 따라 공급된다.⁵⁾ 이 밖에도 자금전환과 회원국의 자금 분담 부분이 EAFRD로 전이된다. 표제 1인 ‘지속 가능한 성장’도 EAFRD를 지원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루는 지원으로 회원국에 따라 자금 규모가 다르다.

2. CAP 예산의 구성과 배분

2005년 재정연도(2004년 10월 16일~2005년 10월 15일)를 기준으로 CAP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경종작물에 대한 직불이 170억 € 또는 전체의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고기 16%, 낙농 8% 순으로 높다.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 조치(직불, 가격보조 등)의 16%에 그쳤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CAP 수혜국은 프랑스로 2005년에 전체의 20.4%를 차지했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각각 13.3%, 13.1%, 11.2%를 차지하였다<표 2>. 신규회원국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수혜국은 폴란드로 3.8%를 기록하였다. 1989~91년 평균 대비 2003~05년 CAP 배분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룩셈부르크로 1,185%가 늘었으며, 포르투갈 265%, 스페인 168%, 영국 110% 등을 나타냈다. 네덜란드는 같은 기간에 CAP 지출 규모가 감소한 유일한 회원국으로서 55%나 줄었다.

5) 2007~13년에 EU 정책에 대한 자금 배정은 6개 표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지속 가능한 성장, ②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리, ③ 시민정신, 자유, 안전, 정의, ④ 국제 역할자로서 EU, ⑤ 행정, ⑥ 보상이다.

표 1 2005년 CAP의 항목별 예산액

항 목	예산액(100만 €)
EU 농업 집행위원회 관리와 지원	4.8
작물	29,134.6
곡물 시장조치	395.0
쌀	469.0
경종작물 직불	16,972.3
식품 프로그램	223.0
설탕과 화폐조치	1,770.1
올리브기름	2,296.7
섬유 작물	912.9
과일과 채소	1,814.0
포도주 관련품목	1,227.8
담배	928.8
기타 작물과 조치	737.0
수평적 특성의 직불	1,388.0
축산물	13,683.8
우유와 유제품	3,804.5
소고기	7,887.9
양고기와 염소고기	1,794.5
돼지고기, 달걀, 가금류, 양봉	197.0
감사	-374.9
일반 운영지원과 협력	66.0
수산물	33.2
가축질병, 위생, 공공건강	288.0
시장조치 합계(A)	42,835.5
농촌개발 EU15	4,910.0
신규회원국 전환 농촌개발	1,931.0
농촌개발 합계(B)	6,841.0
합 계(A+B)	49,676.5

주: 수평적 특성의 직불은 신규 회원국의 단일면적 직불제도(단일면적 직불)를 포함함.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표 2 회원국별 CAP 보증부문 예산의 비중과 성장률

회원국	CAP 비중 (2005년)	기간 평균 성장률 (’89/’91~’03/’05)
프랑스	20.4%	86.5%
독일	13.3%	45.2%
스페인	13.1%	167.8%
이탈리아	11.2%	15.0%
영국	8.6%	110.6%
그리스	5.6%	43.2%
폴란드	3.8%	-
아일랜드	3.7%	31.1%
네덜란드	2.6%	-54.9%
오스트리아	2.5%	62.4%
덴마크	2.5%	10.5%
벨기에	2.1%	8.8%
스웨덴	2.0%	85.2%
핀란드	1.8%	107.1%
포르투갈	1.8%	265.4%
헝가리	1.5%	-
체코	0.9%	-
리투아니아	0.6%	-
슬로바키아	0.5%	-
라트비아	0.3%	-
슬로베니아	0.3%	-
에스토니아	0.2%	-
체코	0.1%	-
룩셈부르크	0.1%	1184.7%
몰타	0.0%	-
합 계	100%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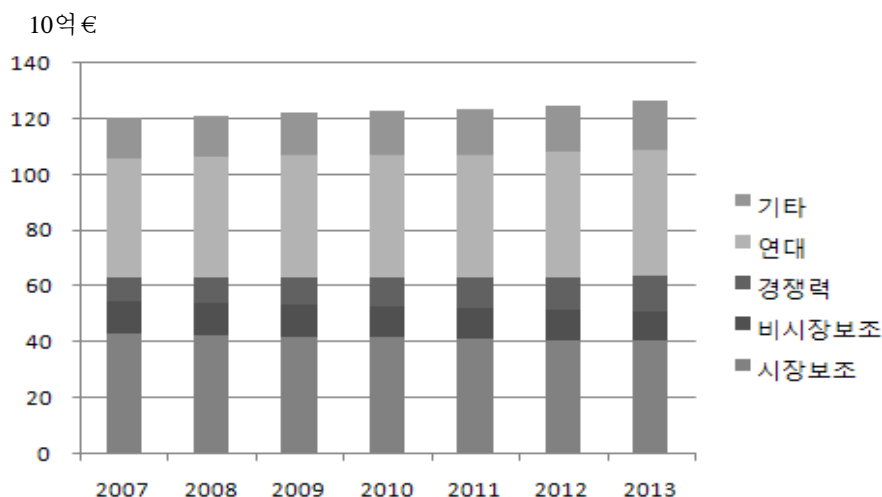
주: 1995년에 회원국이 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비교 기간은 1995~97년과 2003~05년임.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3. CAP 예산 계획

2007년 CAP 예산은 2004년 가격으로 550억 €에서 2013년에 €511억으로 감소될 계획이다<그림 2>. 2002년에 유럽 이사회는 CAP 예산을 2013년까지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명목가격으로 연간 1% 증액만을 허용하였다. 이는 2007~13년에 예상되는 연간 물가상승률 2%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회원국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개혁적인 결과이다.⁶⁾

그림 2 EU 예산 계획 (2007~13년)



- 주: (1) 시장보조(주로 직불)와 비시장보조(주로 농촌개발)가 CAP에 해당하며, 표제 (Heading) 2 ‘천연자원 보존과 관리’를 구성하는 항목임.
 (2)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과 (성장을 위한) 연대는 표제 1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성함.
 (3) 기타는 표제 3~6의 합계임.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농촌개발 예산이 감소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직불에서 농촌개발로 전이되는 자금전환율의 상승, 회원국의 농촌개발 분담 증대, 표제 1에 속한 (성장을 위한) 연대에서 농촌개발로 자금 전이 따위를 감안하면 농촌개발 예산은 줄지 않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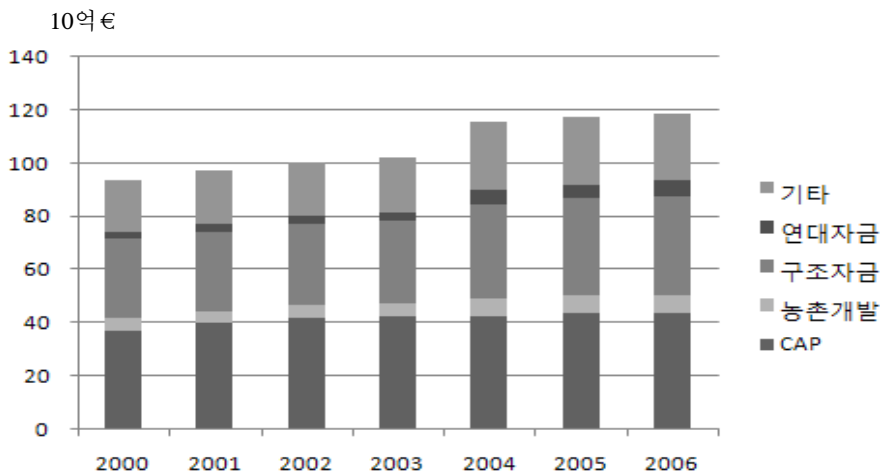
6) 단, 2007년부터 EU 회원국이 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CAP 지출 예산은 추가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이다.

이로써 EU 예산에서 CAP이 포함된 ‘천연자원 보존과 관리(표제 2)’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지속 가능한 성장(표제 1)’보다 1% 포인트 낮은데, 이는 EU 예산에서 농업 비중이 처음으로 2위로 밀린 결과이다.⁷⁾

비교를 위해 2000~06년 CAP 예산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2004년 가격 기준으로 2006년 예산은 506억 €였다. 2000~06년에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3 EU 예산 (2000~06년)



주: (1) 2000~04년은 1999년 가격 기준이고, 2004~06년은 2004년 가격 기준임.
 (2) CAP과 농촌개발은 표제(Heading) 1인 ‘농업’에 속하고, 구조자금과 연대자금은 표제 2인 ‘구조정책’을 구성함.
 (3) 기타는 표제 3~8의 합계임.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참고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

7) 1970년대까지 CAP은 전체 예산의 80% 가량을 차지했으며, 농정개혁 전까지는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왔다.

EU, 유기농업유형 개황

유 찬 회⁺

유럽연합(EU)은 유기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이를 통해 EU 전반의 유기농업의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04년 5월 EU 확대 이후 유기농업 현황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EU-25 내 유기농업은 완만한 성장세

EU-25의 이용 가능한 전체 경지 중 유기농업 면적은 2003년 3.7%에서 2005년 4.0%까지 증가하였다. 회원국 중 유기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05년 11%를 기록한 오스트리아이고, 이탈리아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유럽 지역의 유기농업은 안정세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2003년 5.8%→2005년 5.2%), 핀란드(7.2%→6.5%), 스웨덴(7.1%→7.0%) 등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회원국이다.

EU-25 중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탈리아가 전체 면적의 약 18%를 점유하여 최대 규모이다.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14%를 차지하여 그 뒤를 잇고 있다. 체코 공화국은 2004년 신규 가입한 국가 중 유기농업 면적이 가장 큰 국가로 전체 대비 비중은 약 4%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표 1 유기 농경지 면적과 변화율, 2005년

단위: ha, %

국가	2005년 유기 농경지 면적	2004~05년 변화율
EU-15	5,350,604	4
EU-25	6,115,465	6
벨기에	22,994	-3
체코 공화국	254,982	-3
덴마크	134,129	-13
독일	807,406	5
아일랜드	34,912	19
그리스	288,737	16
스페인	807,569	10
프랑스	560,838	5
이탈리아	1,069,462	12
사이프러스	1,698	96
라트비아	118,612	354
리투아니아	64,544	75
룩셈부르크	3,158	-
헝가리	128,576	-3
말타	14	1,300
네덜란드	48,765	1
오스트리아	360,369	5
폴란드	82,730	-
포르투갈	233,458	8
슬로베니아	23,499	4
슬로바키아	90,206	76
핀란드	147,587	-9
스웨덴	222,268	1
영국	608,950	-12
노르웨이	43,010	6

주: 1) 유기 농경지는 전환기 경지를 포함

2)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2004년 자료

자료: Eurostat Organic Farming Statistics

2004~05년 동안 유기농업 경지면적 성장률은 말타, 라트비아가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역시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영국은 최소 이 기간 동안은 면적이 감소하였다.

2. 유기농업 운영주체의 87%가 생산농가

유기농업 운영주체의 양태도 유기농업 경지와 유사하다. 유기농업 운영주체 중 농가들은 주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특히 체코 공화국,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표 2 유형별 유기농업 운영주체 수, 2005년

단위: 명

국가	전체	생산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EU-15	168,524	144,767	27,379	1,881
EU-25	182,305	157,852	27,951	1,916
벨기에	1,282	720	530	67
체코 공화국	1,234	835	131	7
덴마크	3,597	3,036	603	100
독일	22,032	17,020	7,153	590
아일랜드	1,066	957	120	7
그리스	15,556	14,771	1,002	9
스페인	17,509	15,693	1,764	52
프랑스	16,546	11,402	4,995	149
이탈리아	49,469	44,860	6,418	200
사이프러스	159	159	-	-
라트비아	2,883	2,873	36	0
리투아니아	1,817	1,802	15	0
룩셈부르크	110	74	36	1
헝가리	1,898	1,731	281	15
말타	7	6	4	0
네덜란드	2,238	1,377	940	193
오스트리아	21,455	20,321	1,056	78
폴란드	3,815	3,760	55	-
포르투갈	1,660	1,577	82	1
슬로베니아	1,758	1,724	33	13
슬로바키아	210	195	17	0
핀란드	4,782	4,436	394	21
스웨덴	4,809	4,238	412	159
영국	6,413	4,285	1,874	254
노르웨이	2,889	2,558	403	30

주: 일부 국가는 2004년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를 사용,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Eurostat Organic Farming Statistics

생산농가 수가 가공업자 수보다 많다. 그러나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가공업자 비중이 42% 이상이고,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영국에서는 30%대에 머물고 있다. 가공업자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과 마케팅 수준이 높은 편이다.

EU-15 국가의 유기 농산물 및 농가 수 증가는 매우 완만하다. 그러나 북부와 남부 지역 국가들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유럽 지역에서는 유기농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전체 운영주체 규모는 북유럽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3 신규 진입 및 이탈 유기농업 운영주체 수, 2005년

단위: 명, %

국가	신규 진입	이탈	신규진입 비중	이탈 비중
벨기에	136	64	10.6	5.0
체코 공화국	229	118	18.6	9.6
덴마크	252	530	7.0	14.7
독일	2,479	1,356	11.3	6.2
아일랜드	144	24	13.5	2.3
그리스	7,284	1,613	46.8	10.4
스페인	-	-	0.0	0.0
프랑스	-	-	0.0	0.0
이탈리아	12,060	3,948	24.4	8.0
라트비아	1,845	12	64.0	0.4
리투아니아	-	-	0.0	0.0
룩셈부르크	17	11	15.5	10.0
헝가리	-	-	0.0	0.0
말타	6	0	85.7	0.0
네덜란드	152	130	6.8	5.8
오스트리아	625	405	2.9	1.9
폴란드	-	-	0.0	0.0
포르투갈	199	0	12.0	0.0
슬로베니아	402	219	22.9	12.5
슬로바키아	117	34	55.7	16.2
핀란드	155	697	3.2	14.6
스웨덴	128	725	2.7	15.1
영국	1,197	731	18.7	11.4
노르웨이	217	203	7.5	7.0

자료: Eurostat Organic Farming Statistics

북유럽 지역의 유기농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치 중 하나는 유기농업 관련 업무를 중단하는 주체의 수가 신규 진입하는 주체 수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이다. 반면 그리스, 라트비아, 말타,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신규 진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3. 유기농업 농가는 전체 농가의 1.6%

대다수 EU-25 회원국에서는 전체 농가 수 대비 유기농업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업 경지면적 비중과 유사한 추세이다. 2005년 오스트리아의 유기농업 농가 비중이 12%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는 2% 수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0.3% 이하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유기농업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은 구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자료의 결과에서 전체 농가의 평균 규모와 유기농업 농가의 평균 규모를 잘 비교할 수 있다. 참고로 농가구조조사(Farm Structure Survey)에서는 모든 사용 가능한 경지면적, 즉 작물 재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경지까지도 집계한다. 또한 영세농가와 이 농가의 경지 면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경작하는 경지면적만을 집계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유기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농업 통계의 통계치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는 유기농업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이 전체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등에서 두드러지고,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서도 나타난다.

유기농업규정 No 2092/91은 두당 최소 면적 등 유기축산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기농업 농가의 면적이 클수록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표 4 유기농업 농가의 평균 영농 규모, 2005년

단위: ha/호

국가	유기농업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	전체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
벨기에	38.7	16.0
체코 공화국	37.0	21.4
덴마크	31.9	26.9
독일	305.4	84.2
아일랜드	44.2	53.7
그리스	47.4	43.7
스페인	36.5	31.8
프랑스	19.5	4.8
이탈리아	51.5	23.0
라트비아	49.2	48.6
리투아니아	23.8	7.4
룩셈부르크	5.5	3.4
헝가리	41.3	13.2
말타	35.8	11.0
네덜란드	47.8	52.7
오스트리아	76.8	6.0
폴란드	2.3	0.9
포르투갈	35.4	23.5
슬로베니아	17.7	19.1
슬로바키아	22.0	6.0
핀란드	148.0	11.4
스웨덴	13.6	6.3
영국	462.6	27.4
노르웨이	33.3	32.1

주: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는 2004년 자료 이용
 자료: Eurostat Organic Farming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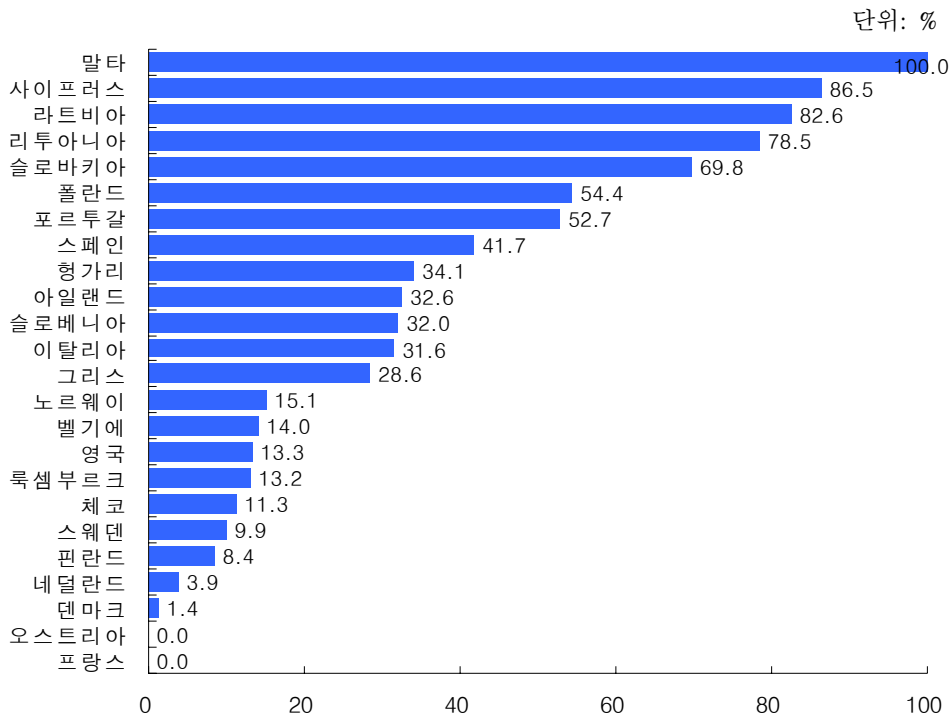
4. 전환기 경지 면적 비중은 국가별로 다양

유기농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지(fully converted area)에서만 실질적인 유기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진다. 관행농법으로 경작하던 경지를 유

기농업에 적합하도록 전환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은 유기농업규정 No. 2092/91에서 명시하고 있다.

전체 유기농업 경지 대비 전환 중인 경지의 비중을 알면 앞으로 유기농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1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국가별로 잠재적인 유기농업 성장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환율이 70~100%인 국가인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바키아는 향후 유기농업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30%대의 전환율을 기록한 국가들 역시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인 22개 국가 중 1/3 이상이 15% 이하의 전환율을 기록하였고, 이들 국가의 유기농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전체 경지 중 전환 중인 경지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그림 1 국가별 유기농업 경지 중 전환 중인 경지의 비중



주: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2004년 자료 이용
 자료: Eurostat Organic Farming Statistics

표 5 단년생 작물 면적 및 주요 작물 구성비, 2005년

단위: ha, %

국가	전체	곡물 (쌀 포함)	과채류	녹색사료	산업용 곡물	기타 경지
벨기에	8,704	26	4	66	0	4
체코 공화국	16,085	66	1	20	3	9
덴마크	108,695	34	1	57	1	8
그리스	45,397	75	1	19	3	3
프랑스	247,807	31	3	41	7	19
이탈리아	434,481	37	3	52	4	4
사이프러스	35	29	6	11	14	40
라트비아	16,984	22	0	74	1	2
리투아니아	8,820	72	1	3	0	25
룩셈부르크	1,187	44	1	42	1	13
헝가리	36,102	51	2	19	20	8
네덜란드	17,502	28	14	21	2	35
포르투갈	26,790	93	2	0	2	2
슬로베니아	1,036	42	6	40	5	8
슬로바키아	8,961	50	2	28	10	10
핀란드	132,459	35	0	46	2	16
스웨덴	140,075	38	1	53	2	6
영국	138,806	26	7	61	1	4
노르웨이	30,955	18	0	75	0	5

주: 체코 공화국, 프랑스, 사이프러스, 헝가리, 슬로베니아는 2004년 자료 이용

곡물류는 단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목초지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자료만 놓고 보았을 때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의 5개 국가만이 일정 수준 이상의 면적에서 다년생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작물은 대부분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실수, 올리브 나무, 양조용 포도밭 등이다. 사이프러스만이 다년생 작물 비중이 단년생 작물 비중보다 크게 높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두 작물 비중이 모두 20% 정도로 비슷하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단년생 작물 비중이 80% 이상이다.

곡물과 녹색 사료는 가장 중요한 단년생 작물이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두 작물 중 하나 이상을 재배하고 있다. 다만 헝가리에서는 산업용 곡물(해바라기 등)의 비중이 20%에 이른다.

많은 국가에서 목초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체코 공화국이나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유기농 경지의 90% 이상이 목초지로 이용된다. 사이프러스와 핀란드에서는 이 비중이 극히 낮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목초지는 현재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목초지 비중은 해당 국가의 농산물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가축 사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유기 가축 사육 규모를 결정한다.

5. 유기축산 중 양의 비중이 최대

소, 양, 돼지를 대상으로 전체 사육두수 대비 유기축산 가축두수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유기축산의 비중이 높고, 양이 가장 일반적인 유기축종임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체 양 사육두수 중 24%가 유기축산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사육하는 소의 비중도 17%로 상당히 높다.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에서도 유기축산 두수 비중이 5% 이상이다. 그리스는 유일하게 유기 돼지 사육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13%가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기축산 규모는 국가별로 증감 편차가 있다. 벨기에의 경우 2004~05년 소와 돼지 사육 규모가 각각 6%, 3% 감소한 뒤 2005~0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체코 공화국은 2004~05년 유기 돼지 사육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05~06년에는 급감하였다.

표 6 유기축산 사육 두수 및 변화율, 2005~06년

단위: 두, %

국가	소			돼지			양		
	2005	2006	증감률	2005	2006	증감률	2005	2006	증감률
벨기에	30,116	33,422	11.0	8,090	12,196	50.8	10,636	13,330	25.3
체코 공화국	67,956	115,192	69.5	3,108	1,464	-52.9	24,230	39,967	64.9
덴마크	122,760	132,147	7.6	53,541	80,850	51.0	11,609	12,445	7.2
에스토니아	9,289	13,312	43.3	253	414	63.6	11,163	20,723	85.6
아일랜드	21,950	24,450	11.4	700	860	22.9	38,000	38,000	0.0
그리스	22,900	22,292	-2.7	126,003	110,096	-12.6	218,293	259,275	18.8
스페인	56,701	81,471	43.7	10,665	13,549	27.0	137,831	212,190	53.9
이탈리아	222,516	222,725	0.1	31,338	29,736	-5.1	738,737	852,115	15.3
라트비아	21,439	-	-	6,580	-	-	6,109	-	-
리투아니아	3,843	8,670	125.6	70	200	185.7	3,658	8,507	132.6
네덜란드	36,269	-	-	26,200	-	-	9,340	-	-
오스트리아	333,826	338,593	1.4	52,170	49,927	-4.3	79,551	81,318	2.2
포르투갈	62,218	-	-	6,763	-	-	124,408	-	-
루마니아	-	11,365	-	-	1,652	-	-	86,180	-
슬로베니아	14,539	14,464	-0.5	1,966	1,740	-11.5	21,071	22,920	8.8
슬로바키아	20,133	-	-	206	-	-	57,830	-	-
핀란드	19,048	22,409	17.6	3,046	2,221	-27.1	9,948	11,316	13.8
스웨덴	-	95,936	-	27,299	26,398	-3.3	34,700	34,038	-1.9
영국	214,276	244,752	14.2	29,995	32,926	9.8	691,000	747,299	8.1
노르웨이	18,533	18,881	1.9	494	1,333	169.8	31,962	33,027	3.3

자료: European Animal Production Statistics

참고자료

EU 통계청 자료

EU, 곡물 수입관세 부과 한시적 중단

유 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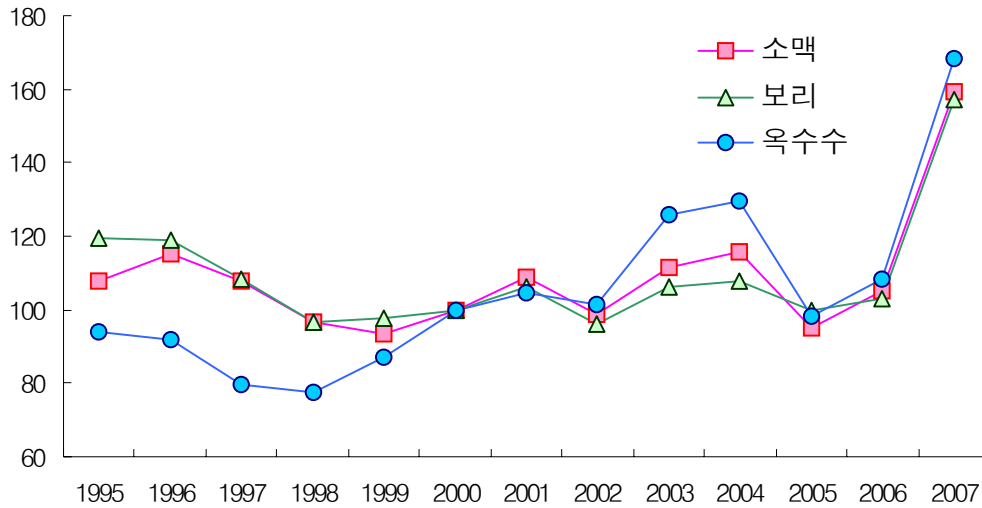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2007년 12월 20일 귀리, 메밀, 기장을 제외한 곡물에 대해 수입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 조치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1월 제안한 이 조치는 EU를 비롯한 세계 곡물 시장의 수급이 유례없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곡물 보호 수준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낮아졌지만, 특정 곡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인 마리안 피셔 보엘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수입 관세 부과 중단 조치로 역외 수입을 활성화시키고 EU 곡물시장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EU의 곡물 총 재고량(민간 부문 및 정부 비축분 합계)은 1,32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2006/07년의 작황이 평년 수준이어서 정부 비축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상기후로 수확이 크게 감소하여 EU 곡물 생산량은 2억 5,600만 톤(추정치)에 그쳤다. 이는 2006/07년 수확량과 비교할 때 1,000만 톤(3.5%) 감소한 수치이다. EU는 작황 부진과 재고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08년도 곡물 수입을 전년보다 증가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곡물 순수출국이었던 유럽은 2007/08년 순수입국이 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그림 1 EU-27 곡물 가격 지수 (1995~2007)



주: 명목가격 기준, 2000년 가격을 100으로 하여 디스플레이한 수치임.
 자료: Eurostat

유럽 곡물 가격은 2007년 7월 이후 급상승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 재고 감소, 전년 전망보다 저하된 품질, 정부 비축분 고갈(현재 50만 톤)로 시장 공급이 위축된 결과이다.

EU는 GATT 협약에 따라 모든 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왔고, 보리와 중·저급 품질의 통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대상이 되는 곡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세계기준 가격에 의거하여 책정되었다. 관세 수준은 EU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정부 개입 가격에 1.55를 곱한 값과 로테르담 항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CIF 가격 차이만큼 부과하였다.

파스타용 밀(durum wheat)과 고품질 연맥(soft wheat), 호밀, 소맥에 부과되는 관세는 없다. 옥수수 수입 관세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진폭이 크게 증가하여 톤당 0~16.21 €에 이른다. 쿼터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최대 9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중·저급 품질 소맥과 보리는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TRQ를 적용하여 왔다. 소맥에는 특정 국가 쿼터(미국 57만 2,000톤, 캐나다 3만 8,853톤)를 포함하여 연간 298만 9,240톤의 TRQ를 제공하고 있다. 두 국가의 쿼터를 제외한 237만 8,387톤은 네 부분으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제3국가에 배정한다. TRQ 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12€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보리는 연간 30만 6,215톤의 TRQ를 제공하고 있으며, 톤당 16€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효모용 보리에는 별도로 5만 톤의 쿼터를 배정하며 톤당 8€의 관세가 부과된다.

옥수수는 2006년부터 24만 2,074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 물량은 둘로 분할하여 제 3국가에 배정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수입하는 옥수수와 호밀에 대해서는 보다 할당 한도 내에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표 1 EU 주요 곡물 가격 지수 추이

품목	국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곡물	EU27	115.3	119.9	108.7	98.7	98.1	101.2	93.9	101	108.2	90.7	102.7	154.3
	EU15	126.4	124.4	111.1	101.6	101.1	101.9	94.7	101.2	102.7	90.3	102.6	150.3
소맥	EU27	107.6	115	107.9	96.8	93.4	108.8	98.5	111.4	115.9	95.1	105	159.1
	EU15	138.1	133.6	119.7	108.6	103.7	110.2	100.7	106	110.7	96.8	107.1	157
보리	EU27	119.5	118.8	108.2	96.8	97.8	106	96.2	106.1	107.9	99.6	102.9	157.4
	EU15	138.5	129.8	115.1	103.5	104.6	105.6	95.2	102.6	104.4	102.2	104.6	160
옥수수	EU27	93.9	91.9	79.7	77.4	86.9	104.8	101.5	125.6	129.7	98.1	108.4	168.4
	EU15	130.4	118	97.3	96	103.6	97.2	100	105	109	93.5	104.3	143.1
산업용 곡물	EU27	101.6	104.8	105.8	106.6	93.3	108.1	106.2	111.4	113.3	105.7	104.2	109.5
	EU15	106.7	108.1	107.3	106.7	93.7	107.9	105.4	110.6	108.9	101.5	100.9	106.4

주: 1) 명목가격 기준, 2000년 가격을 100으로 하여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2) 곡물은 종자 포함, 소맥은 가축사료용 포함

자료: Eurostat

참고자료

EU 집행위원회 자료 번역(<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7/1977&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EU 통계자료(<http://epp.eurostat.cec.eu>)

일본,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 발표

배 민 식⁺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6년 9월 아베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방 활성화가 내각의 중요 과제로 제시되자 종전에 실시하던 농산어촌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10월에 농산어촌활성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동 본부는 2006년 12월에 ‘농산어촌활성화전략’을 발표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2월에는 농림수산성과 지방농정국 등에 농산어촌활성화지원창구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2007년 5월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일반적으로 농산어촌활성화법이라고 한다)을 공포하였다. 동 법률은 ① 정주 및 지역간 교류 촉진에 대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책정, ② 활성화계획 작성, ③ 교부금 교부, ④ 소유권 이전 등 촉진계획 작성, ⑤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 기초한 수속 원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농림수산성은 지역격차시정을 위해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재생을 위한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인재에 대한 직접지원, 새로운 지역협동 형성,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 02-788-4352

중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국산바이오 연료 등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농림수산업에 관련된 고용 창출, 정부 각 부처 연대에 의한 고용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소개하기에 앞서 참고로 일본 농산어촌의 최근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령화·과소화 진전

- 65세 이상 비율
전 국 : 1995년 15% → 2005년 20%
중산간지역 : 1995년 22% → 2005년 27%
- 인구 증감율(2005년)
도시적지역 : + 0.2%, 중간농업지역 : △ 0.7%, 산간농업지역 : △ 1.3%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저하

- 경작방기지 추이 : 1990년 216,785ha → 2005년 385,791ha
- 조수의 피해(2006년)
피해액 : 19,640백만엔, 삼림피해 : 5,138

(3) 저하지역의 경제상황 및 고용 격차

- 1인당 현민(縣民) 소득(2004년)
3대 도시권 : 332만엔
지 방 권 : 264만엔
- 지역별 유효구인배수(求人倍數)(2007년 9월)
홋카이도(北海道) : 0.57 도후쿠(東北)·큐슈(九州) : 0.74
도카이(東海) : 1.57 기타칸토(北關東)·코신(甲信) : 1.23

1. 활성화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

(1) 농산어촌의 활성화는 지역의 인재와 농림수산물, 전통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유형, 무형 소재를 ‘지역의 힘’(地域力) 으로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힘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 추진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계획 책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이런 인재를 중핵으로 하여 집락내, 집락간, 집락과 도시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각 부처와 연대하면서 지방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2) 인구의 감소, 혼재화 등에 의해 생활활동의 상호 보완, 생활 상호부조, 자치·협의 형성과 같은 전통적인 농촌의 집락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자나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주민들간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또 지역이나 집락을 활성화 하여 새로운 지역협동을 형성하며, 농산어촌 집락의 재생을 도모한다.

(3) 농림수산물 등을 비롯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과 관련산업의 연대에 의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또한 도시주민에 의한 관광, 두 지역거주 등 도시와 농촌의 공생·대류를 추진하는 것 등을 통해 농림수산업에 관련된 고용을 창출한다.

(4) 이와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농림수산성 시책만으로는 전부 대응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관련부처의 시책과 일체가 되어 시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2. 활성화 전략 내용

2.1. 인재에 대한 직접지원

2.1.1. 지역의 힘(地域力)을 발굴하는 인재의 육성

(1) 지역리더와 외부로부터의 어드바이저

지역의 힘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지역의 리더 육성이나 지역의 내부에 있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지역의 힘에 대한 유용성을 지적하고, 이것을 지역 활성화에 이용하기 위해 조언을 하는 어드바이저를 파견한다.

(2) 고향 응원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고향 응원대’를 조직하고, 고향을 활성화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2.1.2. 지역의 힘(地域力) 활용

(1) 플랜 작성

지역의 힘을 활용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책정을 지원한다.

(2) 실천활동을 직접지원

지역주민이 스스로, 또는 NPO, 도시주민 등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활동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2.2. 농산어촌집락 재생

2.2.1. 새로운 지역협동 형성

(1) 농림어업에 관련된 ‘축제’, ‘전통문화’, ‘경관’ 등의 보전·부활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주민, NPO,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속에 농산어촌의 전통문화 등의 유형무형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농산어촌생활공간’을 보전·활용하는 모델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집락간 또는 집락과 도시주민 등과의 지역협력활동 형성

근린집락간에 있어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협동이나 집락의 재편을 지원하고 또한 집락의 광역연대에 의한 농산어촌 등의 판매확대, 지역활성화에 협력하는 NPO, 도시주민 등과의 지역활동 형성 등을 지원한다.

(3)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에 기초하여 지역 전체가 지역자원을 지키는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

농지나 농업용수 등의 지역자원과 환경을 지키고,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해 지역 전체의 공동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원한다.

(4) 지역 특산품의 도시 소개·전개와 지역의 배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고령농림어가 등으로부터의 집하 연구

전국 소비자에게 농산어촌 지역의 기후나 지형, 역사적 경위를 통해 키워온 그 지역만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전국에 전개하기 위한 정보발신 등을 실시하는 행동에 대한 지원 및 출하가 곤란한 고령농림어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배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유통모델의 구축 지원에 대해 검토한다.

2.2.2. 중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1)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를 통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중산간지역 등에서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경작방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조건외 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지원을 충실하게 실시한다.

(2) 종합적인 조수해대책 실시(포획체제 정비, 방호책, 완충지대의 설치, 처리가공 시설의 정비)

시정촌이 작성하는 조수해방지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포획대책 등의 개체 수 조정, 방호책 설치, 완충지대 설치 등의 생식환경관리 추진을 지원하고, 그와 함께 포획한 조수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처리가공시설 등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2.3. 지역활성화 전국 실시 추진

지역활성화에 관련된 소프트 사업이나 하드 사업을 이용하기 쉽게 메뉴얼화하고 지역농정국 등의 창구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거나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 교부금 등을 활용한 모델지구를 설정하고, 전국 실시를 지원한다.

2.3. 지역경제 활성화

2.3.1. 국산 바이오 연료 등에 의한 지역 활성화

(1) 바이오연료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림어업자와 연료제조업자의 공동·연대하는 것을 지원(관련 기관과 협력)

국산바이오연료의 대폭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공정표에 기초하여 2011년에 5만 kl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2)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타운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관련 기관과 협력)

‘바이오매스·일본 종합전략’에 기초하여 2010년에 바이오매스타운을 300지구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2.3.2. 농림수산업에 관련된 고용 창출

(1) 120만명의 초등학생을 농촌에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 추진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과 연대하여 초등학교 한 학년 단위의 숙박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지역을 구축하고, 농림어가 민박 등을 경영하는 농업자 등의 농외수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2) 과수·야채, 계단식논 오너제, 체험농원, 두 지역 거주 추진

도시주민에게 농촌에서 활동하는 기회나 식과 농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과수·야채, 계단식논 오너제, 체험농원을 추진하고, 또한 단괴(團塊)세대¹⁾를 대상으로 한 두 지역 거주를 추진한다.

(3) 고령·소규모농가, 유기농가 등 다양한 주체가 활약할 수 있는 농림수산물 직판소 등에 의한 지산지소, 농지의 유효이용 촉진

농림수산물 직판소, 가공시설 등을 정비하는 등 지산지소를 지원하여 고령·소규모농가, 유기농가 등 다양한 주체가 활약하는 지역농업 만들기를 추진하고 아울러 농업경영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에 의한 농지 유효이용을 촉진한다.

(4) 식료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일체적으로 의식한 식농연대에 의한 국산농림수산물 등의 소비 확대

식료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국산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식품 개발, 판로개척을 지원. 또 국산농림수산물 등의 판매촉진, 지역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 ‘아침밥먹기’ 운동²⁾ 등과 같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신 등을 지원. 또한 지역식품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품질관리(HACCP 등)의 보급 추진과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철저히 실시한다.

(5) 지역브랜드화 추진

‘식과 농림수산업의 지역브랜드 협의회’의 개최 등을 통해 농림수산물과 지역식품의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지원한다.

(6) 지역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기술개발 추진

지역의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1) 일본에서 1947~1949년의 제1차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최근 정년퇴직을 맞고 있음.
2) 농림수산성이 쌀소비 확대 방법의 하나로 아침밥을 먹자고 2007년 11~12월에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

새로운 수요나 고용을 창출하는 신식품·신소재 개발이나 신생산시스템 확립 등, 지역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을 산학관연대를 통해 추진한다.

(7)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삼림정비·보전, 삼림자원의 활용 지원

삼림흡수목표의 확실한 달성과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간벌·보육 등 적절한 삼림 정비·보전을 추진하고, 임업·목재산업의 재생과 삼림자원의 다각적인 이용에 의한 새로운 산업창출을 지원한다.

(8) 어업의 경영안정대책 충실과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효율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경영체를 현행의 어업공제제도에 추가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실증·개발 지원, 수산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9) 지역 수산업을 중핵으로 한 지역 전체의 어촌활성화 추진 지원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구조 형성이나 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의 추진 등을 테마로 지역의 의욕적이고 선도적인 추진을 지원. 그와 함께 다른 업종의 노하우를 활용한 비즈니스플랜 사업화도 지원. 또한 레크레이션·교류의 장으로 어항(漁港)을 활용한다.

2.3.3. 정부 각 부처의 연대에 의한 고용창출

(1) 농림수산성과 상업·공업 연대(경제산업성)

가. 신상품개발·판매촉진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연대에 의한 관련시책의 집중적인 실시 등에 의해 지역산품 등에 관한 판매촉진·신상품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나. 공동캠페인·PR 실시

국산 농림수산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각 소관하는 업계단체 등에 대해 연대하여 협력을 요청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촉진한다.

(2) 빈집, 폐교 활용 촉진(총무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과 연대하여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체재형 농업 체험, 기간취농을 위한 지역시스템 모델 구축과 전국 보급 촉진, 폐교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조사를 실시한다.

(3) 국제·국내 그린투어리즘 등의 관광 촉진 및 그린투어리즘 상품 등의 정보발신(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과 연대하여 비지트 재팬 캠페인에서 국내 그린투어리즘 추진지역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PR하기 위한 국제·국내 그린투어리즘 수용체제 등의 정비를 지원. 또 그린투어리즘 상품 등의 정보발신을 추진한다.

(4) 농림어가 민박의 질·양 양면에서의 확대(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과 연대하여 농림어가 민박어머니 100선 선정을 중심으로 하여 그녀들의 협조를 얻어 농림어가 민박의 질 향상에 관한 정보교환이나 네트워크 구축, 도시 주민에 대한 이미지 전략 등을 전개한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shin_nousei/2007.pdf(일본농림성) 번역

호주, 2008년도 세계 및 호주경제 전망

권 오 복*

세계 경제는 최근 들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해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위험 요소를 더해준다. 2008년 세계 경제는 4.6%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7년과 2006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5.4%였다. 2007~08년 호주의 경제는 전년의 3.2%보다 높은 4.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호주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발표한 2008년도 세계 및 호주 경제전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세계 경제 전망

금융시장불안이 경제 성장에는 영향 안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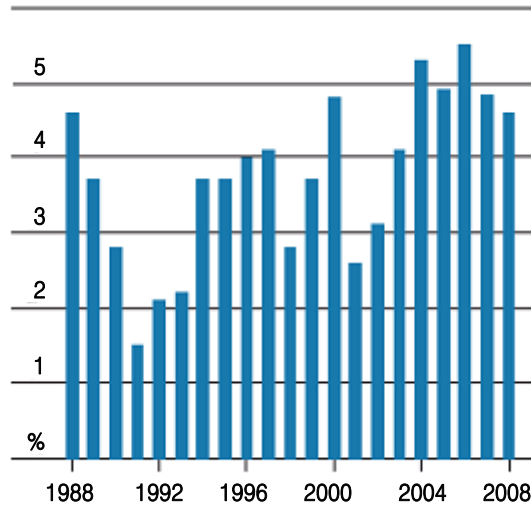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증가했지만 세계 경제는 강세를 띠고 있다. 이것은 주요 신흥시장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경우 3분기에는 전년대비 11.9% 성장했다. 2분기에는 11.9% 성장한 바 있다. 인도경제도 연평균 9% 가량의 고도성장 중에 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른 신흥시장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흥시장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OECD 국가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인다. 미국에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금년 초 빠른 성장에 이어 연중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OECD 국가의 물가는 안정을 보여 왔다. 다만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내수의 강세와 식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격이 상승 기조를 띠는 이유는 주요 국에서 옥수수과 유량종자와 식량작물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하고, 주요 생산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생산이 낮은 상태에서 수요 강세로 인해 다시 상승 기조를 돌아섰다. 비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도 기대에 못 미치고 주요 산유국의 정치 불안도 국제유가를 높게 유지시키는 한 요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많은 신흥시장경제 금융당국은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7년 이래 이자율을 다섯 차례나 인상하였다. 인도의 통화당국도 지난 2007년 6월 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8개월간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이자율 인상이었다.

표 1 주요국의 자국화폐로 표시한 원유가격 인상율

	화폐	2006 평균	2007. 1~10	'06부터 변화율	'07.11월말	'06부터 변화율
OECD						
미국	US\$	66.1	68.1	3.1	98.2	48.6
일본	엔	7,663	8,087	5.5	10,630	38.7
서유럽	€	52.4	50.2	-4.1	65.9	25.8
영국	£	35.8	34.1	-4.6	47.5	32.7
호주	A\$	87.9	82.3	-6.4	112.7	28.3
아시아						
중국	위엔	526.7	521.0	-1.1	728.0	38.2
인도	루피	2993	2,842.1	-5.0	3,867.3	29.2
말레이시아	링기트	243.6	236.3	-3.0	332.8	36.6
인도네시아	루피아	608,266	621,105	2.1	923,698	51.9

2008년 세계 경제는 소폭 성장할 듯

일부 신흥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지표를 전망하면서 2008년 세계 경제는 4.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7년과 200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5.4% 이다.

경제전망에 상당한 하방조정위험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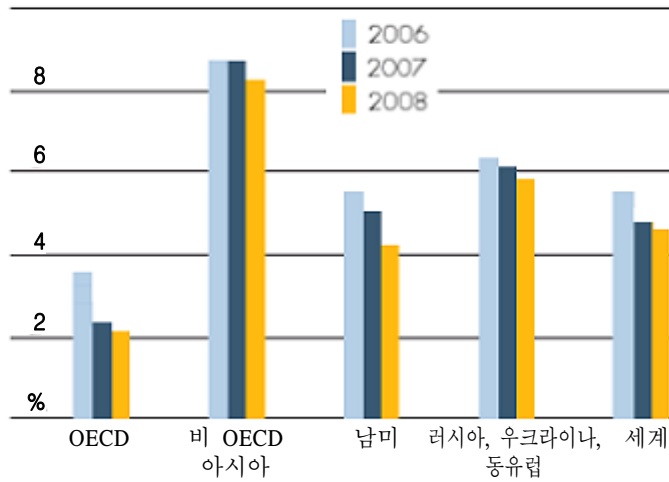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경제에 하방조정위험(downside risks)이 존재한다. 현재 세계 경제 전망에 하방조정위험 요소 중의 하나는 최근 국제 신용시장조건의 취약성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문제로 인해 자본대출국이 자금대출을 꺼려 세계 신용시장에서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신용시장 불안 증가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실패가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선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른다. 최근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은행의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의 크기와 거기에 개입된 은행들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더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시장이자율은 오르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자금 대출비용의 상승, 주가가 하락, 신흥시장 경제에 대한 자본유입 감소 등의 형태로 신흥시장경제에게도 확산된다.

그림 2 주요지역별 경제전망



시장교란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 Bank) 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같은 세계의 주요은행들은 자본시장에 현금 유입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특히 세계 주요 경제의 소비지출과 투자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2008년 미국 경제 둔화될 듯

자본시장의 위축과 금융시장에서 불안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하향조정과정에 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치는 ABARE의 3/4분기 전망치 2.6%보다 0.6%p 낮은 수치이다. 2007년 미국 경제는 약 1.9%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2006년에는 2.9% 성장하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어려움은 주택건설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하여 고에너지가격, 고용기회 증가의 정체,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지출 역시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세계 증시 현황

	주식시장 지수		
	52주간 최고치 1)	2007년 11월말	변동률
OECD			
미국	14,165	12,937	-8.7
일본	18,300	14,995	-18.1
유럽	4,558	4,235	-7.1
호주	6,852	6,405	-6.5
동아시아			
중국	6,396	5,415	-15.3
한국	2,065	1,829	-11.4
대만	9,860	8,537	-13.4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733	2,598	-4.9
말레이시아	1,414	1,362	-3.7
필리핀	3,897	3,534	-9.3
싱가폴	3,906	3,367	-13.8
태국	925	820	-11.3
인도	19,978	18,979	-5.0

주: 2006년 11월말부터 2007년 11월까지 최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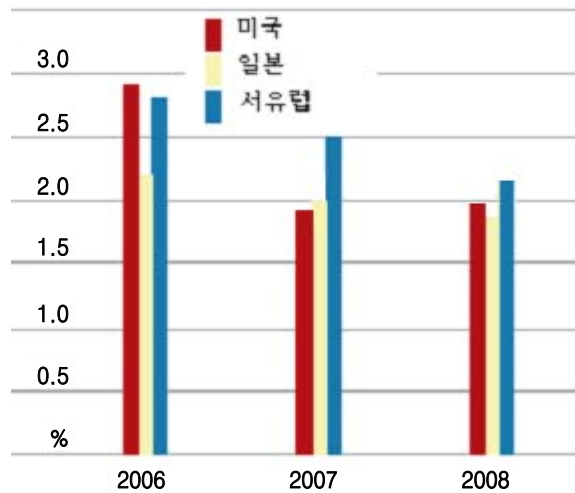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미국 주택부분 조정은 미국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건설경기의 급격한 냉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1%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도 미국의 주택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가계 활동의 위축에서 오는 미국 국내 수요의 하방조정위험이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신용시장의 위축으로 가계 부문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기대보다 더 하락하고,

그에 따라 채 대출이 어렵게 되고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면 민간 소비는 물론 주택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 이외에도 미국 경제가 장기에 걸쳐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은행이 화폐정책을 신속하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둔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림 3 미국, 일본, 서유럽의 경제 성장



서유럽에 대한 영향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과 서유럽 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유럽의 여러 은행이 미국 주택 부문 대출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서유럽도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수요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서유럽 주택시장에서 하방위험의 한 요인은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지에서 주택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주택가격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럽지역의 주택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비우량주택대출문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2008년도 서유럽 경제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과 2006년 유럽경제 성장률은 각각 2.5%, 2.8% 이었다.

일본에 대한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듯

일본의 경우 미국 비우량주택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이 둔화되어 잠재 성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외부 여건이 소비자와 기업가의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에 의해 일본의 경제 활동은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정 효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기준 2007년 3분기 일본의 경제는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2분기 1.6% 성장에 뒤이은 것이다.

최근 공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단기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와 일본 내 소비 지출의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다소 소강 국면을 보일 것이다. 2008년 일본의 경제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과 2006년 일본 경제는 각각 2.0%, 2.2% 성장하였다.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경제 전망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아시아의 비 OECD 국가의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강세를 띠며 따라 강한 성장세에 있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

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태국 국내 수요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표 3 세계 주요 지역, 국가별 거시경제 가정

	단위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OECD	%	2.6	3.2	2.4	2.3
미국	%	3.1	2.9	1.9	2.0
일본	%	1.9	2.2	2.0	1.8
서유럽	%	1.5	2.8	2.5	2.1
독일	%	0.8	2.9	2.4	2.0
프랑스	%	1.7	2.0	1.9	2.0
영국	%	1.8	2.8	3.1	2.3
이탈리아	%	0.1	1.9	1.7	1.3
한국	%	4.2	5.0	4.8	4.6
뉴질랜드	%	2.7	1.6	2.8	2.3
개발도상국	%	7.1	7.7	7.6	7.2
중국	%	10.4	11.1	11.5	10.5
인도	%	9.0	9.7	9.0	8.5
대만	%	4.1	4.7	4.1	4.0
남미	%	4.6	5.5	5.0	4.3
러시아	%	6.4	6.7	7.0	6.5
세계	%	4.8	5.4	4.8	4.6
인플레이션					
미국	%	3.4	3.2	2.7	2.3
이자율					
미국	%	7.3	8.0	8.0	7.5
미 달러 환율					
대 엔화	Yen/ US\$	110	116	116	113
대 유로화	Euro/ US\$	0.80	0.79	0.73	0.71
호주					
경제성장률	%	2.8	3.0	3.2	4.25
물가상승률	%	2.4	3.2	2.9	2.8
이자율	%	8.9	9.1	9.8	10.5
호주 달러 환율					
대 미 달러		0.75	0.75	0.78	0.88
대 중국위안		80	85	93	101

자료: ABARE, IMF, OECD, ABS, RBA.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은 견고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완화될 것 같지 않다. 중국 경제의 경우 2007년 11.5%의 경제 성장에 이어 2008년에도 1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경제도 2007년 9.5% 성장에 이어 2008년에도 8.5% 성장이 예측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미국 경제성장이 주춤함에 따라 수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태국 경제가 소비자 및 기업가의 신뢰 회복으로 다시 살아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2007년 5.8% 경제 성장에 이어 2008년에는 5.5%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시점에서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낙관적인 측면은 중국경제의 성과가 항상 기대보다 나아서 중국 경제의 둔화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 이란 점이다. 인도 경제도 기업이윤이 투자지출을 계속해서 유도할 경우 기대보다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다소 어두운 측면으로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와 OECD 국가와 강력한 무역 연관 하에서 OECD 국가 경제의 침체는 아시아 제품에 대한 수출수요를 저감시켜 지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다른 하방위험요인

중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2007년 9월 전년대비 6.2% 상승한데 이어 10월에도 전년대비 6.5% 상승해서 최근 들어 물가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10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1.5%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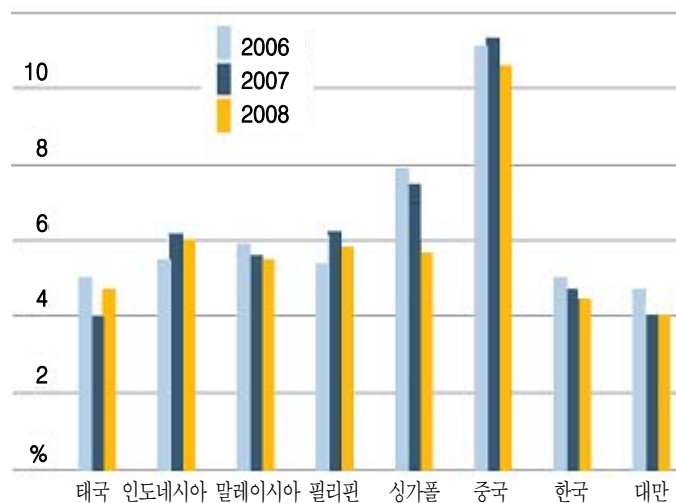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2007년 10월 식료품가격은 전년대비 17.6% 상승해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가솔린과 디젤 가격을 올려 물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 압력을 막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기준대출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왔다. 중국 경제가 계속 강세를 띠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긴축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자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2. 호주 경제 전망

호주 경제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3분기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2007년 10월 현재 실업율도 4.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4 아시아 경제 성장



향후에도 호주 자원에 대한 수입수요가 계속 늘어나 호주 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여 소비지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 경제는 4.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에는 3.2%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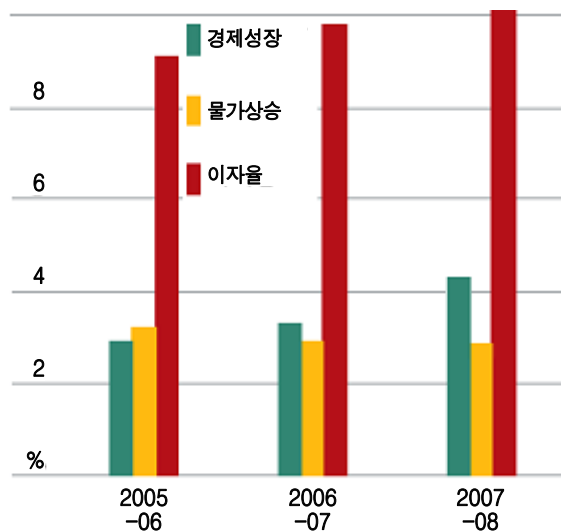
장하였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과 10월 사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도에 강우량이 적어 동계작물의 작황이 이전 예측 수준보다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리한 기후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북부, 뉴사우스웨일즈 등이다. 축산 역시 좋지 않은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목초 생육상황이 좋지 않고 구입 사료 값이 비싸 양축농가들은 가축두수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2007~08년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할 전망이다. 2006~07년에는 21% 감소하였다. 2007~08년 농산물 생산은 13% 증가하겠지만 축산물 생산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

2007년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분기 1.2% 인상에 이어 3분기에는 0.7% 증가하였다.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과일(9.6%), 채소(7.9%), 물(5.5%), 각종 요금(4.5%), 전기(4.35%) 등이다. 다만 보육비(33.4%), 약품(4.5%), 자동차연료(3.7%) 등은 물가가 내려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을 다소 상쇄하였다.

그림 5 호주의 경제 지표



최근 발표된 다른 물가지수를 보아도 호주의 물가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전년대비 최종소비재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07년 2분기 2.3%에 이어 3분기에는 2.4%였다.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국내 부문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반면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 부문은 5.5% 하락하였다.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2006~07년 2.9%에 이어 2007~08년에는 2.8%로 전망된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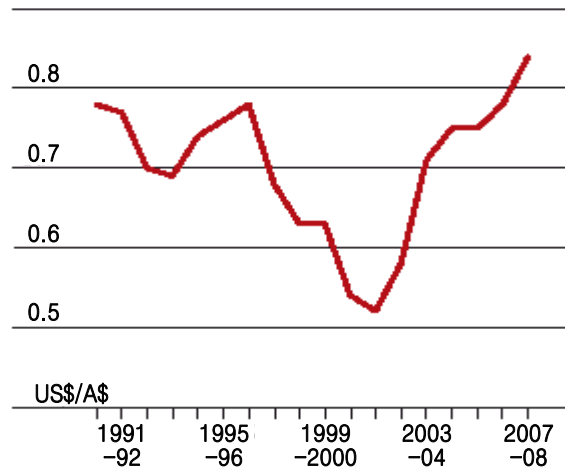
지난 수개월간 호주 달러는 대미 달러에 대해 큰 폭으로 평가 절상되었다. 지난 8월 중순 1호주달러에 79센트(미화기준)하던 호주 달러 가치가 11월 초순에는 93센트에 달하다고 11월 하순에 87센트로 다소 평가절상 폭이 완화되었다.

2007~08년 초기 5개월간 호주달러의 대미 달러에 대한 환율은 87센트로 전망된다. 이것은 2006~07년 호주달러의 평균 환율인 78센트와 비교된다.

이처럼 호주달러가 강세를 띠게 된 근본 이유는 미국 달러가 해외 통화에 대해 약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환율이 8월 중순 0.74 유로이던 것이 11월 하순에는 0.67유로로 하락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이자율은 비우량주택대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이자율 격차가 벌어질수록 미국 달러화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최근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문제로 미국 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에 대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불안감이 존재한다. 미국 주식 시장이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자본흐름의 종착지로서 미국 경제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약세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호주의 환율 추이



호주경제 전망을 위해 2007~08년 호주 달러의 대미 달러 환율은 88센트로 가정하였다.

미국 달러에 대한 호주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호주 달러는 금융시장의 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호주의 환율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업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07~08년 상품수출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듯

호주 상품의 단위수출수익지수(Index of unit export returns)는 2006~07년에는 8% 이상이었지만 2007~08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단위수출수익지수는 2006~07년 4%에서 2007~08년에는 7%p 상승한 1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7~08년에는 밀, 옥수수, 쌀, 콩, 목화, 섬유 작물, 낙농제품의 국제가격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7~08년 에너지 수출의 단위수익은 3% 정도 증가하지만, 금속과 광물자원 수

출의 단위수익은 7%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은 다소 증가할 듯

호주의 상품수출액은 2006~07년 1,394억 달러에서 2007~08년에는 이보다 1% 정도 증가한 1,405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품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에너지 수출 증가 전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 금속, 기타 광물자원 수출은 한발의 영향과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2006~07년 277억 달러에서 2007~08년에는 이보다 약 3.1% 하락한 268억 달러로 전망된다. 2007~08년에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밀, 목화, 설탕, 산양, 섬유 등이다. 그러나 보리, 캐놀라, 포도주, 양고기, 생우, 대부분의 낙농제품의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임산물 및 수산물의 수출은 2006~07년보다 2.6% 정도 증가한 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Marina Kim and Jammie Pen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4, No.4(December Quarter 2007) 발췌정리.

세계 육류시장 동향 및 2008년 전망

김 현 중*

1. 쇠고기

쇠고기 생산 : 2008년 쇠고기 생산은 약 5,460만 톤으로 전망

브라질 및 중국의 2008년 쇠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경우 국내 가격 상승과 해외 수출시장 호조로 2008년 생산량은 4% 증가한 990만 톤으로 전망된다. 종축 개량과 목장 시설 개선 또한 생산량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3% 증가한 81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여 EU를 제치고 세계 3위의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암태지에 발생한 질병으로 돼지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 암태지 질병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2008년 올림픽 개최로 쇠고기 수요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m1025@krei.re.kr 02-3299-4376

표 1 국가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생산량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12,039	11,261	11,318	11,981	11,969	11,911
브라질	7,385	7,975	8,592	9,020	9,470	9,850
중국	6,305	6,759	7,115	7,492	7,850	8,065
EU-27	8,304	8,245	8,090	8,060	8,000	7,900
아르헨티나	2,800	3,130	3,200	3,100	3,175	3,125
인도	1,960	2,130	2,250	2,375	2,500	2,655
멕시코	1,950	2,099	2,125	2,175	2,200	2,215
호주	2,073	2,081	2,102	2,183	2,261	2,100
러시아	1,670	1,590	1,525	1,430	1,380	1,370
캐나다	1,184	1,496	1,523	1,391	1,345	1,300
남아프리카공화국	613	655	679	725	670	680
기타국가	3,806	3,906	3,935	3,802	3,669	3,380
계	50,089	51,327	52,454	53,734	54,489	54,551

주: 2007년은 잠정치, 2008년은 전망치이며, 인도는 버팔로종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미국 농무부(<http://www.fas.usda.gov>).

표 2 국가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소비량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12,340	12,667	12,663	12,834	12,815	12,675
EU-27	8,596	8,582	8,550	8,561	8,550	8,475
중국	6,281	6,712	7,041	7,409	7,756	7,969
브라질	6,285	6,417	6,795	6,964	7,095	7,225
아르헨티나	2,430	2,519	2,451	2,553	2,655	2,595
멕시코	2,319	2,376	2,428	2,519	2,555	2,580
러시아	2,369	2,300	2,492	2,361	2,422	2,462
인도	1,528	1,638	1,633	1,694	1,775	1,855
일본	1,348	1,169	1,186	1,159	1,210	1,220
캐나다	1,059	1,023	1,079	1,086	1,090	1,034
호주	808	771	759	747	757	761
기타국가	3,799	3,813	3,921	4,007	3,860	3,440
계	49,162	49,987	50,998	51,894	52,540	52,291

주 : 2007년은 잠정치, 2008년은 전망치임.

쇠고기 수출

호주는 가뭄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브라질은 6% 증가하였다. 주요 쇠고기 수출국(브라질, 미국, 인도, 캐나다)의 교역량은 800만 톤으로, 수입국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2008년 브라질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270만 톤을 수출해 세계 3위의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홍보를 통해 중동지방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교역이 중단되었던 아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 이외에도, NAFTA 인근 국가의 수요증가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77만 5,000톤이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및 멕시코의 수출은 활기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시장은 월령 제한 및 월령 증거자료 제시 등으로 수출량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시장은 수출재개를 위해 관련규정 수정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표 3 국가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수출량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브라질	1,162	1,610	1,845	2,084	2,400	2,650
호주	1,241	1,369	1,388	1,430	1,450	1,380
인도	432	492	617	681	725	800
미국	1,142	209	317	519	650	776
캐나다	413	603	596	477	480	550
아르헨티나	382	616	754	552	525	535
뉴질랜드	548	594	577	530	515	530
우루과이	282	354	417	460	400	410
EU-27	438	363	253	216	175	175
중국	36	52	76	85	99	102
멕시코	12	19	32	39	45	45
기타국가	227	133	99	37	53	45
세계 총합	6,315	6,414	6,971	7,110	7,517	7,998

BSE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여러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교역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55만 톤으로 광우병 발병 이전 시기의 생산량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평가된 캐나다 달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규정의 완화로 수출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호주는 쇠고기 수출이 전년보다 5% 감소한 14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발생한 가뭄으로 사육두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출량도 감소하였다. 아시아 시장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이 호주에게는 좋은 기회이나, 호주산이 미국산과 경쟁하기에는 공급량 부족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쇠고기 수입

세계 시장의 쇠고기 수요량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주요 쇠고기 수입국들의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주요 질병 발생이 없었으므로, 수출국은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조치를 겪지 않았으며, 수입국에서도 수입규제를 점차 완화하였기 때문에 2008년 교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4 국가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1,363	1,669	1,632	1,399	1,471	1,551
러시아	709	719	978	939	1,050	1,100
EU-27	549	641	711	717	725	750
일본	833	634	686	678	715	725
멕시코	381	296	335	383	400	410
한국	457	224	250	298	315	320
캐나다	304	123	151	180	225	255
이집트	127	173	221	291	250	255
홍콩	92	88	95	97	100	105
타이완	101	82	95	104	105	105
남아프리카공화국	14	23	29	27	30	30
기타국가	240	249	262	220	227	69
세계 총합	5,170	4,921	5,445	5,333	5,613	5,675

미국은 전년보다 5% 증가한 160만 톤의 쇠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보이며, 30개월령 이상 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오일머니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여파로 쇠고기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

2007년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6년보다 3.9% 감소한 9,468만 톤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의 200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주요국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생산량이 2007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돼지 소모성 질환의 일종인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피해로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06년보다 9.6% 감소하였다.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돼지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2007년보다 돼지고기 생산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5% 감소한 185만 톤이었으며, 2008년에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일부 주(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도축장 폐업으로 미국으로 비육돈 수출이 증가하여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도축장 폐업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비육돈 수출량이 2008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유럽연합(EU)-27개국, 브라질, 러시아의 200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미국의 200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6년보다 3.3% 증가한 988만 톤으로 추정되며 2008년 생산량은 2.3% 증가한 1,011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의 2007년 생산량 증가는 효과적인 백신 투여로 돼지 질병에 의한 폐사율이 낮아졌으며, 캐나다로부터의 비육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료가격이 높아 도체중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돼지 폐사율 저하와 비육돈 수입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EU에서의 200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6년보다 1.7% 증가한 2,204만 톤으로 추정된다. EU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로 2007년 돼지 가격이 EU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0.6% 감소한 2,191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7년 브라질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6년보다 5.3% 증가한 298만 톤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2007년보다 3.9% 증가한 31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f)
중국	45,186	47,016	50,106	51,972	47,000	48,000
EU-27	21,712	21,753	21,676	21,677	22,040	21,910
미국	9,056	9,312	9,392	9,559	9,877	10,108
브라질	2,560	2,600	2,710	2,830	2,980	3,095
러시아	1,710	1,725	1,735	1,805	1,880	2,000
캐나다	1,882	1,936	1,920	1,898	1,850	1,790
일본	1,260	1,272	1,245	1,247	1,260	1,255
멕시코	1,100	1,150	1,195	1,200	1,200	1,250
대만	893	898	911	905	910	910
우크라이나	630	558	493	485	530	540
기타	4,499	4,581	4,756	4,926	5,151	2,134
합계	90,488	92,801	96,139	98,504	94,678	92,992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년은 전망치임. EU-27은 EU 27개국임.

세계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중국의 소비량 감소로 2006년보다 3.8% 감소한 9,384만 톤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2007년에 돼지고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량이 9.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6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캐나다와 기타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들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7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개최 예정국인 중국의 2008년 소비량은 2007년보다 2.2% 증가할 전망이고 미국은 2.1%, 브라질, 러시아는 각각 3.9%, 6.4%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2008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7년보다 4.1% 감소할 전망이다.

표 6 주요국의 돼지고기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f)
중국	45,054	46,648	49,703	51,467	46,690	47,700
EU-27	20,683	20,528	20,632	20,518	20,790	20,800
미국	8,816	8,817	8,670	8,640	8,939	9,129
러시아	2,417	2,338	2,486	2,639	2,734	2,874
일본	2,331	2,529	2,482	2,458	2,500	2,490
브라질	1,957	1,979	1,949	2,191	2,265	2,320
멕시코	1,423	1,556	1,556	1,580	1,565	1,580
캐나다	1003	1068	967	971	970	930
대만	934	948	944	928	927	928
우크라이나	623	606	544	544	609	619
기타	4,907	5,033	5,217	5,578	5,850	2,799
합계	90,148	92,050	95,150	97,514	93,839	92,169

돼지고기 교역(수입, 수출)

돼지고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수출량은 달러화 약세,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06년보다 1.0% 증가한 137만 톤 이었다. 특히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공급 부족 현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주로 수입했던 홍콩으로의 수출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2008년에도 2007년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만 돼지고기 공급 부족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량이 2008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미국 다음으로 돼지고기 수출량이 많은 국가이며 주로 러시아로 돼지고기를 수출한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브라질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71만 5,000 톤으로 2006년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2007년보다 8.4% 증가한 77만 5,000 톤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기후 조건이 온화하여 사료곡물 재배 여건이 양호한 편이어서 비교적 저비용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다른 돼지고기 수출국보다 수출량 증가 폭이 큰 것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유로화의 강세로 2007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6년보다 1% 감소한 127만 톤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돼지 가격 상승으로 2007년보다 11% 감소한 113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7년 돼지고기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공급 부족으로 돼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007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2006년보다 44.4% 증가하였다. 2008년에도 수입량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돼지고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2007년보다 15.4% 증가할 전망이다.

홍콩 또한 2007년에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수입량은 29만 3,000 톤으로 2006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2.4% 증가한 30만 톤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자체 돼지고기 생산량도 증가하지만 소득 증가로 돼지고기 소비 더 크게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2007년 수입량은 85만 5,000 톤으로 2006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2007년보다 2.3% 증가한 87만 5,000 톤으로 전망된다.

표 7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f)
수입	일본	1,091	1,269	1,314	1,154	1,200	1,210
	러시아	707	614	752	835	855	875
	미국	538	499	465	449	456	465
	멕시코	371	458	420	446	435	410
	홍콩	260	294	263	277	293	300
	중국	265	169	99	90	130	150
	기타	537	615	812	939	911	920
	합 계	3,769	3,918	4,125	4,190	4,280	4,330
수출	EU-27	1,140	1,302	1,143	1,283	1,270	1,130
	미국	779	989	1,209	1,359	1,373	1,442
	캐나다	975	972	1,084	1,081	1,040	1,025
	브라질	603	621	761	639	715	775
	중국	397	537	502	595	440	450
	칠레	80	103	128	130	160	177
	기타	196	173	163	163	156	157
	합 계	4,170	4,697	4,990	5,250	5,154	5,156

3. 닭고기

닭고기 생산 및 소비

닭고기 주요 생산국의 도계수수 증가로 2007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보다 3.9% 증가한 6,292만 톤으로 추정된다.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의 2007년 닭고

기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닭고기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어서 2008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2.4% 증가한 6,44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8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정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f)
중국	9,898	9,998	10,200	10,350	10,850	11,400
브라질	7,645	8,408	9,350	9,355	10,105	10,550
EU-27	7,916	7,852	8,169	7,803	8,035	8,090
멕시코	2,290	2,389	2,498	2,592	2,656	2,722
인도	1,500	1,650	1,900	2,000	2,200	2,400
러시아	560	650	900	1,180	1,350	1,500
아르헨티나	750	910	1,030	1,200	1,300	1,400
일본	1,127	1,124	1,166	1,227	1,235	1,225
태국	1,340	900	950	1,100	1,050	1,150
캐나다	929	946	977	971	995	1,005
기타	6,226	6,230	6,635	6,717	7,067	6,426
미국	14,696	15,286	15,870	16,043	16,076	16,536
합계	54,877	56,343	59,645	60,538	62,919	64,404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년은 전망치임. EU-27은 EU 27개국임.

2007년 중국과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보다 각각 4.8%, 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2007년보다 각각 5.1%, 4.4% 증가한 1,140만톤, 1,055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년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닭고기 수요 증가로 2007년보다 2.9% 증가한 1,654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오던 러시아의 2007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보다 10.0% 증가한 220만 톤으로 추정되며, 2008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9.1% 증가한 24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증가로 2008년 닭고기 소비량 또한 2007년보다 1.8% 증가한 6,23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5년 말에서 2006년까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가 발생하면서 EU-27개국에서는 2006년 닭고기 소비량이 2005년보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9 주요국의 닭고기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정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f)
중국	9,963	9,931	10,088	10,371	11,010	11,570
EU-27	7,739	7,613	8,082	7,718	7,885	7,940
브라질	5,742	5,992	6,612	6,853	7,200	7,450
멕시코	2,627	2,713	2,871	3,021	3,070	3,146
러시아	1,680	1,675	2,139	2,373	2,540	2,680
인도	1,496	1,648	1,899	2,000	2,200	2,400
일본	1,841	1,713	1,880	1,939	1,925	1,913
아르헨티나	719	845	949	1,123	1,154	1,249
남아공	928	956	1,010	1,096	1,090	1,090
베네수엘라	705	755	842	804	970	1,020
기타	7,494	7,660	8,100	8,299	8,518	7,840
미국	12,540	13,080	13,430	13,784	13,657	14,005
합 계	53,474	54,581	57,902	59,381	61,219	62,303

올림픽 개최로 2008년 중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보다 5.1% 증가한 1,157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2008년에는 2007년보다 2.5% 증가한 1,4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닭고기 소비 증가 속도가 여타 국가들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닭고기 교역(수입, 수출)

브라질과 미국은 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의 2008년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닭고기 수출량 증가의 원인은 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2003년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이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브라질

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007년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량은 2006년보다 16.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닭고기 수출량 또한 2007년보다 6.7% 증가한 31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입국인 러시아의 닭고기 수입은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국 내 닭고기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2008년 러시아의 닭고기 수입량은 2007년과 비슷한 118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10 주요국의 닭고기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정육기준)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f)
수입	러시아	1,081	1,016	1,225	1,189	1,180	1,180
	일본	695	582	748	716	675	680
	중국	453	174	219	343	513	560
	EU-27	546	489	609	605	550	550
	사우디아라비아	452	429	484	423	440	450
	멕시코	338	326	374	430	415	425
	아랍에미레이트	154	158	167	183	250	260
	홍콩	154	244	222	243	233	245
	남아공	125	154	189	260	240	240
	베네수엘라	29	69	104	124	150	160
	기타	498	678	651	668	670	605
	미국	6	12	15	21	29	27
합 계		4,531	4,331	5,007	5,205	5,345	5,382
수출	브라질	1,903	2,416	2,739	2,502	2,905	3,100
	EU-27	723	728	696	690	700	700
	중국	388	241	331	322	353	390
	태국	485	200	240	261	315	320
	아르헨티나	39	66	84	80	150	155
	캐나다	76	74	101	110	130	140
	쿠웨이트	3	24	97	38	60	70
	아랍에미레이트	40	15	20	10	30	30
	호주	15	13	14	14	14	14
	사우디아라비아	20	10	10	10	10	10
	기타	29	26	34	28	31	27
	미국	2,232	2,170	2,360	2,361	2,480	2,524
합 계		5,953	5,983	6,726	6,426	7,178	7,480

돼지고기 공급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7년 중국의 닭고기 수입량은 2006년보다 46.9% 증가한 51만 톤으로 추정된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2008년 중국의 닭고기 수입량은 2007년보다 9.2% 증가한 56만 톤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닭고기 구매업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2007년 닭고기 수입은 브라질보다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브라질산 뼈 없는 가슴살 수입 가격이 2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2007년보다 0.7% 증가한 68만 톤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http://www.fas.usda.gov/psdonline/>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November 9, 2007 발췌정리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8년 1월 농업협상 동향
OECD, 최근 논의동향과 2008년 전망

DDA, 2008년 1월 농업협상 동향

신 유 선*

DDA 농업협상이 1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 심층회의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다자협의(주요국 심층회의, Room E1)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세부원칙(Modalities)²⁾ 수정안 제시 전 협상의제 전반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inys@krei.re.kr 02-3299-4287

1)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쿠바(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G-33,G-20,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케냐(G-33,아프리카,ACP), 한국(G-33,G-10),레소토(LDC,아프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G-20,G-33), 파나마(G-33,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G-20,열대작물), 필리핀(G-33,G-20,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LDC,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대작물,G-20).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한편,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7년 11월 그린룸회의(주요국 협상수석대표 회의)에서 DDA 협상 타결 시점을 2008년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월 말경 농업협상 그룹 의장의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이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고위급 또는 각료급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다자협상에 참가하여 G10³⁾, G33⁴⁾ 등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핵심이익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협상 동향

1월 3일부터 11일까지 Room E 협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1월 3일부터 4일까지는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1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1월 10일에는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월 11일에 개최된 Room E 협의에서는 면화(Cotton)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연이어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의장은 1월 11일 Room E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1월 21일 주간부터 수정텍스트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이를 제출할 계획이며, 그동안 또 다른 Room E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 특히, 개도국들은 수정 텍스트 제출 이후 수평적 협의

-
- 3)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 4)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 진입하기 전에 농업협상그룹 차원의 논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협상그룹 및 주요국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⁵⁾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우리나라는 Zero Cut 특별품목(SP) 숫자의 확대, 특별품목(SP) 문제와 관세감축공식과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신규가입국(RAM)⁶⁾은 작업문서가 신규가입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1월 14일 G33 주요국 대사급 협의에서는 1월초 Room E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특별품목(SP)에 대한 논의에서 의장이 G33의 hybrid 접근법을 작업문서에 반영하고, Zero cut에 대해 명시하는 등 유용하였다는 평가에 참석국들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들이 Zero cut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등 큰 진전은 없었으며, 의장이 Zero cut에 대한 작업문서의 애매한 표현에 대한 명시를 했음에도 여전히 의장의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의장은 아직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수정 텍스트 작성시기(1월 21일 주간) 사이에 회원국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정 텍스트는 보다 깨끗한 텍스트('A Lot Cleaner Revision')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5) 농산물 관세 감축 분야를 시장접근(Market Access),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한을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이라고 한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이 농업협상의 3대 분야입니다.
- 6)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 중에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주요 협상 내용

2.1.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에 대한 논의

2.1.1. 관세상한(Tariff Capping)

관세상한⁷⁾ 도입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의장 작업문서에 직접적인 관세상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상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관세상한은 지나친 부담이 되어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2.1.2.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민감품목⁸⁾ 지정 및 대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이 민감품목 선정 개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하였고, 민감품목 지정시 TRQ(저율관세 수입물량) 증량방식에 관한 기술적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특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분야 즉, 가공품과 하한(Floor) 설정 등에 대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Deviation을 3개로 늘린 데 대한 의견수렴을 확인하였다.

민감품목은 작업문서에 기초하여 여타분야처럼 구조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요구가 아직 있으나 진전이 있는 상황이므로 더 신중하게 작업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7)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 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8)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2.1.3.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개도국 특별품목(SP)⁹⁾의 대우와 관련해서는 개도국 그룹(G33)이 의장문서에서 제시된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폭이 너무 크고 관세감축 면제 범위는 지나치게 작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2.1.4. 관세감축공식

관세감축공식에서는 구52, 53항을 민감품목규정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논의 되었다.

2.1.5.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경사관세¹⁰⁾의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크지 않았으나, 문제는 품목범위임을 확인하였다.

2.1.6. 관세 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관세 단순화¹¹⁾는 어느 정도까지 단순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매우 복잡한 관세형태에 대한 결론은 분명해 지는 상황이다.

9)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크다.

1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1)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증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증가상당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452ro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이다.

2.1.7. 쿼터 내 관세

쿼터 내 관세에 대한 의견대립은 크지 않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TRQ와 신규 TRQ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2.1.8. 수입쿼터(TRQ) 관리방안

TRQ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작업문서가 합리적인 논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2.1.9. 특별긴급관세(SSG)

특별긴급관세¹²⁾에서는 주요국(EU)의 입장 변화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2.1.10.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1월 14일 G33 주요국 대사급 협의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¹³⁾는 Room E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장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텍스트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공감하였다.

2.1.11.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열대작물¹⁴⁾은 품목범위에 큰 이견차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회원국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13)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1.12.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특혜잠식¹⁵⁾에서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기존 품목을 일부 감축한 수정 리스트를 제출함으로써 일보 진전이 있었다. 사무국도 페이지를 제출하였으며, 회원국들끼리 논의를 통해 수정 텍스트 작성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2.2.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분야에 대한 논의

국내 보조분야에서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및 감축대상보조(AMS)의 이행 첫째 감축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¹⁶⁾의 개도국 우대(S&D)¹⁷⁾,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② 최소허용보조(De-minimis)¹⁸⁾와 무

15) 특혜잠식문제는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특혜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6) DDA 협상에서는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수(OTD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17) 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길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이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였다. 물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개도국별로 실제 감축폭과 이행기간이 다를 수도 있다.

18) De-minimis는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성격이 같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

역왜곡보조총액(OTDS)간 상호연관관계 확인, ③ 품목 특정 감축대상보조(AMS)¹⁹⁾에 대한 추가 명시 필요, ④ 과도기적 보조(Blue Box)²⁰⁾에 대한 이해관계 확인이 이루어졌다.

표 1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폭

구 간	OTDS 감축폭		
	2006. 6월	2007. 4, 5월	2007. 7월
1 (EU)	70~80	좌 동	[75] [85] %
2 (미국, 일본)	53~75	“	[66] [73] %
3 (기타)	31~70	“	[50] [60] %

자료 : 농림부

표 2 감축대상보조(AMS) 감축폭

구 간	AMS 감축폭		
	2006. 6월	2007. 4, 5월	2007. 7월
1 (EU)	70~83	70	[70] %
2 (미국, 일본)	60~70	60	[60] %
3 (기타)	37~60	37~60	[45] %

자료 : 농림부

2.2.1. 면화(Cotton)

C4 그룹은 면화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면화에 대해 추가적인 의무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 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한다.

19)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였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가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이다.

20)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는 감축대상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이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EC가 C4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세부원칙초안 38항에서 제시한 감축대상보조(AMS)의 과도기적 보조(Blue Box)로의 전환 비율을 1:1로 제시한 것은 블루박스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C4 제안을 지지하며, 면화는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EC는 자국의 면화 생산비중이 전 세계 생산의 2% 수준으로 낮으며 현재 면화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하고 있고 단지 전체 보조의 35%만 블루박스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국에 대한 타국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회의 시 제안한 감축대상보조(AMS)와 과도기적 보조(Blue Box)의 전환비율을 2:1에서 1:1로 하는 방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2.3.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에 대한 논의

2.3.1. 수출신용(Export Credit)

수출신용²¹⁾에서는 G20²²⁾ 제안의 6항bis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없었으며, 7-9항도 제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3.2. 식량원조(Food Aid)

식량원조²³⁾에서는 비긴급상황하의 현금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 21)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을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 22) G20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이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 23)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 방향이다.

2.3.3. 차별 수출세

차별 수출세의 Bracket 제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일본이 신규 수출세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차기 수정 시 100% 완성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08년 1월 DDA 농업협상 주요내용

이슈	주요 쟁점	의장문서내용	1월 협상 내용
관세 감축	○ 관세상한 도입여부	○ 관세상한 미포함	○ 수출국은 관세상한 도입 주장
민감 품목	개수 ○ 개수 ○ 지정 단위 관련 - 수출국: 품목단위 - 수입국: 세번단위	○ 개수는 4~6%수준 ○ 세번단위 지정 염두	○ G10 등 개수 확대 주장 ○ 수출국들은 세번단위 지정시 TRQ물량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를 지적
	대우 ○ TRQ 증량수준 - 세번단위 지정시 소비량 계산문제 i) 최소 증량 설정 ii) 가공품 처리문제 iii) TRQ관리방안	○ TRQ는 소비량의 3-6% 수준 ○ 소비량 계산 관련, 각국 입장을 반영한 Option 제시	○ 소비량 계산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 집중
특별 품목 (SP)	○ SP 개수 ○ SP 대우 - 관세감축면제 여부 및 범위	○ 개수는 민감품목 개수 보다는 많이 인정 ○ 일부 면제 인정 (약 1-2%)	○ G33은 의장문서 반대 (감축율 크고 면제범위 작음) ○ 수출국들은 감축면제 반대 ○ 의장은 새로운 안 제시 - 평균감축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감축면제 인정
특별 긴급 관세 (SSG)	○ SSG 철폐 또는 감축여부 ○ SSG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개정문제	○ Option 제시 - 즉시철폐, 4년간 철폐, 일부 유지 등	○ 수출국은 SSG 철폐 주장 ○ G10은 SSG 일부 유지 주장 ○ EC는 i)1.5%로 감축, ii) 6년간 철폐, iii)관세화방안 등 제시
경사 관세	○ 기초 및 가공품 목록 ○ 가공품 감축율	○ 목록 미제시 ○ 감축율 Option 제시	○ 목록에 대해서는 미합의 ○ 감축율은 최상위구간감축율 수준 논의
관세 단순화	○ 종가세 전환비율 ○ 혼합세 등 전환문제	○ 종가세 90% ○ 혼합세 등 종가세(or 종량세)로 전환	○ 수출국은 전체 종가세 주장 ○ G10 및 EC는 일정수준 비종가세 유지 주장
TRQ 관리	○ 쿼터내 관세 감축율 ○ TRQ 관리방안 규율 범위 - 실체적 요건 규율문제 - TRQ 미소진 해소방안	○ 쿼터내 관세의 out-쿼터감축율 수준 감축 ○ 수입허가절차협정 (절차적 규정) 적용	○ 수출국은 쿼터내 관세 철폐 또는 대폭 감축 주장 ○ 수입허가절차협정 적용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 - 단, 수출국들은 TRQ 미소진 해소방안 적용 강화 주장

자료 : 농림부

3. 향후 전망

각국은 이번 회의가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 전 마지막 주요국 심층회의라는 인식 하에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다.

특히, EU의 경우 금년 4월 이전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하였다. 또한 협상이 점차 진전됨에 따라 그룹별 입장에서 자국 중심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이 1월말 또는 2월 초에 제시되면 고위급 회의, 각료급 회의 등 협상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공조를 강화하고 학계·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²⁴⁾.

의장이 텍스트를 내기 전까지 G33이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를 제시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나 텍스트 제출 후 예상되는 집중적 협상에 대비하여 G33 주요국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의 구체적 문제별로 대안 검토 작업을 집중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선 작업과제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일 후 주요국 대사급회의를 재개하여 확정하기로 했으며, 작업일정은 인니가 주요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의장 텍스트 제시 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참석국들은 바로 수평적 협의로 넘어가기보다는 의장주도하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해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 등 여타 개도국 그룹 조정국들과 협의 후 공동입장을 라미 WTO 사무총장, 의장단 등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인니에 협의를 일임하였다.

24) 농림부 보도자료(www.maf.go.kr)

4. 향후 일정²⁵⁾

- 1월 3~11일: Room E 협의
- 1월 21일 주간 :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 작성
- 1월 28일 주간 :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 각국에 배포

참고자료

-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 일본농업신문, 2007. 12. 5.
- Washington Trade Daily Vol.17. no 14, 2008. 1. 18. 발췌정리
www.tradeobservatory.org

25) 일본농업신문, 2007. 12. 5.

OECD, 최근 논의동향과 2008년 전망

윤 동 진*

선진국 클럽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붙여진 수식어였다. 최근 OECD는 스스로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2차 대전 후 1961년 유럽경제 재건을 위해 발족한 OECD는 마샬플랜을 계기로 유럽 16개국이 1948년에 유럽경제 협력기구(OEEC)를 만들었고,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등이 참여해 20개국으로 출발)하였다.

OECD는 그동안 선진국 간 경제협력과 정책협의를 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DDA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글로벌 이슈가 복잡·다극화됨에 따라 OECD도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말 회원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향력 있는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자는 중장기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확대 대상국(Accession countries 5개국)은 러시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칠레이고, 관계 강화대상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5개국)은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는 향후 의사 결정구조나 작업방식 등에 많은 변화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30개 회원국을 유럽 국가와 비유럽 국가, 그리고 후자를 다시 영미권(미국,

* OECD 농무관, dongjinyoon@gmail.com

1) 일본 1964년, 핀란드 1969년, 호주 1971년, 뉴질랜드 1973년, 1994년 이후 6개국(멕시코, 체코,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추가가입으로 현재 30개 회원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누면,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 정도가 남게 된다. 구조적으로 OECD가 유럽의 목소리를 중앙에 담아내고 상당부분 서구의 시각에서 일 해온 배경이라 볼 수 있다.

1. 지구적 사안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최근 OECD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에너지, 혁신(innovation), 거버넌스 등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OECD의 특징이자 장점은 지구적 사안을 회원국의 정부 정책 전문가들이 주도해 다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OECD에 선진국 클럽이라는 수식어 보다는 공공부문 또는 정부 부문의 정책연구센터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 각국에 유명한 연구소들이 많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하지만, 공공부문이 주 고객인 동시에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적 고민을 다루는 싱크탱크는 OECD가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OECD 통계를 비롯한 각종 분석 결과물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 하나 장점은 수평적 이슈에 대한 접근이다. 통계에 따르면 OECD에는 약 200여개의 위원회²⁾, 작업반, 전문가 그룹 등이 있으며 매년 각 회원국 본부에서 약 4만 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중 회의체 어느 한곳에 한정되지 않고 길게 걸쳐 있는 것이 수평적 이슈이다. 예컨대, 물, 기후변화, 정부개혁, 개발이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수평적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접근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요컨대, OECD는 정부 정책을 다루는 연구 기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이슈에 관해 타 국제연구기관과 어떻게 차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2) Committee라는 명칭을 가진 OECD 공식 위원회는 26개임.

2. 농식품 분야 현황과 도전

농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사무국 조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006년 말 OECD는 기존 식품농수산물국(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과 무역국을 무역농업국(TAD)으로 통합하였다.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 제고라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그만큼 회원국 정부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농정개혁과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은 OECD와 WTO의 공조 속에 진행되었다. 세세한 부분의 토론과 쟁점 등은 여전하지만 큰 흐름이 그러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OECD가 운을 띄우면 WTO가 이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UR 농산물 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농업보조금 분쟁이 직접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 또한 블루박스로 대표되는 양대 축의 합의(compromise)가 전체 협상타결의 중요한 분기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UR을 연결시키는 DDA농업협상은 그 맥락과 구조가 사뭇 달라졌다. 아직도 주요국 중심의 사전 정지작업이 일반적이지만, 참여 세력이 늘고 이해관계가 다기화되면서 더욱 복잡해 진 것이다.

한편, UR 이후 10여 년의 이행기간을 지내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책을 개혁하고 효율화 하려는 시도는 일상화되었다. EU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 미국의 농업법(Farm Bill),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정개혁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OECD 농업위원회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해왔다. 예전만큼 WTO협상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농정개혁의 감시자로 OECD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어느 조직이나 새로운 이슈와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면 뒤떨어지게 된다. 각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정책 담당자(Policy maker)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끌어주어야 주의를 끌고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물론 OECD와 WTO협상과의 연계성은 아직 유효하며 국익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요소가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OECD 농업분야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대립과 긴장이 너무 지배적인 느낌이다. 앞으로 OECD가 공공부문의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할 때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약해진 협상의 연계고리를 다시 세우기보다 국가별 농업정책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는 가운데 분야별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잘한 정책을 서로 배우고 정책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OECD의 분석가들은 회원국 농정당국의 정책적 고민을 경험적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추출하되, 정책의 도입과 실천부분은 책임을 감당하는 회원국 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초 농업 위원회 전문패널³⁾의 건의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패널보고서는 OECD가 예전처럼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비판하기보다 성공 정책사례를 확산시켜나간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과 현행 2년 단위 예산 및 업무계획(PWB)⁴⁾과 병행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회원국 본부와의 연계, 작업의 momentum 유지, OECD내의 visibility 제고 등을 위해 최소 5년에 한번은 농업 각료회의⁵⁾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 우선 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대내 농업 및 식품정책

연례 정책검토 및 모니터링(M&E)과 이에 활용되는 PSE(농업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지표 사용자와 외부상황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국가별 비교연구(inter-country comparison)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이용과 관리, 시장, 자유화 정도 등), 푸드 체인을 통한 정책 전달, 계약 및 수직 계열화, 농업 또는 농업인 관련 법적 사회적 재정적 이슈, 수평적 통합, 위험관리정책 등이

-
- 3) 동 패널은 EU, 미국, 일본의 전직 고위관료 3인(프란츠 휘츨러 전 농업담당 집행위원, J.Penn 전 차관, Azuma 전 차관)이 작성하였고,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OECD 농업위원회가 취해야 할 작업우선순위와 접근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4) 2003년부터 OECD의 Program of Work and Budget은 복년제 예산시스템을 따르고 있음.
 - 5) 농업각료회의는 '87년과 '92년, '98년에 열렸음. '92년 회의는 UR타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으나 '87년 각료회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어 '87년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해당한다.

(2) 농식품 무역정책

DDA 협상결과에 대한 분석계획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식품 가공품에 대한 교역 통계 및 교역규범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정책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는 비관세조치(NTM), 그린박스 개념의 구체 명료화(non or minimal trade-distorting의 심화검토),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 교역자유화로 인한 NTC의 위협과 사회적 valuation), 자유화 진전에 따른 위험관리이슈, RTAs와 다자무역규범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3) 농식품 기술혁신(innovation)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등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요구를 만족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농업기술 혁신이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가운데 생산성향상(혁신인센티브, 지식재산권 이슈), 민간과 공공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가능성), biotechnology(회원국 간 정책비교), 경쟁촉진의 측면, 환경사회적 영향평가방법 등에 연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4) 농업과 환경

농업은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의 전형적 사례임에 주목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를 감안할 때 정책영역에서 농업과 환경문제가 부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업정책의 환경적 영향측정을 위해 지표개발 작업을 지속적인 추진하고 한계 또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경영, 경관보전 등에 대한 비교연구, 생물 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적극적 정책개발, 물 관리의 문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5) 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서 농업과 관련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제2세대 바이오연료에 연구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환경적, 식량안보의 맥락을 포괄하여 바이오 에너지 문제가 다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OECD내 타 위원회와 공동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선되어야 할 연구 과제로는 제1세대 바이오연료가 농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2세대 바이오연료를 위한 정책, 그 밖의 바이오매스 정책(바이오가스, 전기생산 등), 식량과 바이오에너지의 경쟁관계 등을 열거하였다.

(6) 기후변화

각국이 동 사안에 전향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농업은 지구온난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농업방식과 동식물 질병전과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후변화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농식품 시장의 안정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며 온실가스에 대한 농업의 양측면(온실가스 배출측면과 이를 치유하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우선과제로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품생산에 미칠 영향, 농업과 기후변화(영향측정법, 절감법, 사회·환경, 사회적 효과), 기후변화 시대에 따른 농업의 기회(저소모경작, 휴경, 메탄저장, 탄소배출시장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7) 농촌정책


비농업분야로의 노동력 유출, 투입재의 외부 의존 경향이 강화되는 한편, 전체 식품체인(food supply chain)으로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 경제에서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농촌정책은 농업을 넘어 농촌 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타 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사무국 내에서도 관련업무가 나뉘어 있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되어야 할 주제로는 농업과 식품부문의 인력 전망 및 분석(유출입, 고령화, 지역별 인력 불균형, 계절노동력, 기술습득, 임금측면 등의 회원국별 현황과 경향, 정책비교), 글로벌시대 농촌지역의 미래(사회·경제적 역할), 농촌지역 적정 인프라 공급을 위한 정책, 통합방식의 농촌정책 실행을 위한 조직화 및 실천 방안(회원국의 상향적 전략사례 등)을 열거하고 있다.

표 1 2008년 OECD 주요 일정 및 의제

	1~7월	8~12월
APM (농정 및 농산물 시장작업반)	45차(2.19~20), 46차(5.21~23) 한국 한국농정보고 승인, 일본농정 초안 농정개혁 종합보고서, 물 보조금 산정, 농촌경제와 농식품산업, 지속가능 농촌개발, 바이오 에너지, 계약을 통한 위험관리 6차 PSE 전문가(3.14~15) 품목 그룹회의(3.27~28) 곡물, 사료, 설탕, 육류 및 낙농시장 전망	47차(10.13~15) 추가일정 예상
JWP (농업·무역 작업반)	59차(5.19~20) NTM 비관세교역조치, 표준, Social concerns에 대응한 규제와 교역영향, 특혜교역협정, '85년 이후 농산물 교역패턴의 변화, 구제역 발생시 예상 시나리오, DDA협상 관련 평가와 분석 등 사례중심 분석계획	60차(10.16~17)
A&E (농업·환경 작업반)	26차(7.1~3) 환경기준 준수조건부 지원(ECC), 바이오에너지, 농정과 환경영향분석(SAPIM), 농지이용, 농업용수이용과 환경, 정책기획 및 집행지침서 등 사례중심 분석계획/ECC워크샵 (일시 미정)	27차(12.1~3)
COAG (농업위원회)	150차(5.13~16) '09~'10업무계획, 농업각료회의, 맨데이트 승인, A5및 E5 등 관련, 비회원국협력, 정책포럼 및 정책레터 등 A5: 러시아, 에스토, 이스라엘, 슬로베, 칠레 E5: 브라질, 인도, 인니, 중국, 남아공	151차(11.17~19) 글로벌 포럼 (11.20~21)
TDP (농촌지역 정책작업반)	국제 컨퍼런스(퀵론, 4.3~4) 주제: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적정 공급방안 국가별 농촌정책 현황 및 시사점 '06(독일, 멕시코) '07(화란,핀란드,스코틀랜드)	10차 미정 스페인,이태리,중국, 사례발표 및 논의
기타	제 22차 농약작업반(2.12~13) 트랙터 코드 정례회의(2.26~27) 14차 신종 식품및 사료안전성T/F(4.8~10) 101차 수산위원회(4.28~30)	생물자원관리 연구협력(12.12) 102차(10.20~22)

실제 농업위원회에서 건의사항들이 얼마나 채택이 될 지는 회원국에 달려 있겠으나 농업 각료회의 조기개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1월 제149차 농업위원회에서 다수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올해 OECD의 농업분야에 대한 논의는 현행 2007~2008년 예산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각료회의 성과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담아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6) 최근 OECD논의는 2-3년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농정개혁 종합보고서, 비관세교역조치, 농촌경제에서 농가와 농식품산업의 역할, risk management 위험관리기법, 구제역 발생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DDA협상관련 평가와 분석, 바이오에너지, 농산업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8. 1)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8. 1)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8. 1)

성명환*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7/08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0억 7,521만 톤, 소비량은 2.8% 증가한 21억 254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8.1% 감소한 3억 909만 톤, 기말 재고율은 1.8% 포인트 감소한 14.7%로 전망되었다.

1. 전체 곡물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20억 7,52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8.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64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1,163만 톤으로 전년보다 1.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3,05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21억 254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도보다 약 5,800만 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hsung@krei.re.kr 02-3299-4366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5/06년도부터 역전되었고 2007/08년도의 경우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7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2억 5,33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8.1% 감소한 3억 909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8% 포인트 하락한 14.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16.82	1,991.93	2,077.13	2,075.21	4.2	△0.1
공 급 량	2,420.60	2,381.09	2,412.12	2,411.63	1.3	0.0
소 비 량	2,031.44	2,044.66	2,096.90	2,102.54	2.8	0.3
교 역 량	253.43	255.18	253.56	253.32	△0.7	△0.1
기말재고량	389.16	336.43	315.22	309.09	△8.1	△1.9
기말재고율	19.2	16.5	15.0	14.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2. 쌀

2007/08년도 쌀 생산량은 2006/07년 보다 0.7% 증가한 4억 2,062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1.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억 2,365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

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1,885만 톤보다 약 47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7/08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2,92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18.7%, 8.7% 씩 늘어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에서 태국이 30.8%, 베트남 17.1%, 미국이 11.9%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약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7,25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17.1%로 전년도 18.0%보다 약 0.9% 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79만 톤으로 전망되어 지난해 보다 37.8%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중국의 재고량도 각각 19.2%, 0.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의 재고량은 12.2% 늘어날 전망이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17.60	417.64	420.48	420.62	0.7	0.0
공 급 량	492.33	494.51	496.11	496.19	0.3	0.0
소 비 량	415.46	418.95	423.93	423.65	1.1	△0.1
교 역 량	30.16	29.25	29.86	29.26	0.0	△2.0
기말재고량	76.87	75.57	72.17	72.54	△4.0	0.5
기말재고율	18.5	18.0	17.0	17.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3. 소맥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많은 6억 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년도 이상기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은 2005/06년도의 약 5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뭄과 수확기 강우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캐나다는 식부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20.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6/07년보다 0.1% 감소한 6억 1,64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소비량은 각각 0.5%, 4.9% 늘어나는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0.5%,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5/06년 1억 1,616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6/07년에는 1억 1,096만 톤, 2007/08년에는 1억 468만 톤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EU, 북아프리카, 러시아의 수입량이 각각 26.5%, 7.7%, 16.3% 증가하는 반면 인도와 브라질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각각 70.2%, 9.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기말재고량은 1억 1,093만 톤으로 전년보다 10.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81/8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EU와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21.0%, 36.0%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20.2%에서 18.0%로 2.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1.46	593.66	602.31	603.00	1.6	0.1
공 급 량	772.08	741.31	726.61	727.38	△1.9	0.1
소 비 량	624.43	616.93	616.55	616.45	△0.1	0.0
교 역 량	116.16	110.69	104.78	104.68	△5.4	△0.1
기말재고량	147.65	124.38	110.06	110.93	△10.8	0.8
기말재고율	23.6	20.2	17.9	18.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4. 옥수수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8.9% 늘어난 7억 6,672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멕시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24.1%, 5.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7억 7,27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15.6% 증가하고 멕시코와 중국도 전년대비 각각 9.9%,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60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2.8% 늘어난 9,434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6.0%, 17.0%로 이들 두 국가가 8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15.3%, 4.6%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수출량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5.6% 감소한 1억 13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60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7/08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8% 포인트 줄어든 13.1%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96.37	703.85	769.31	766.72	8.9	△0.3
공 급 량	827.73	827.55	875.48	874.05	5.6	△0.2
소 비 량	704.03	720.22	766.43	772.72	7.3	0.8
교 역 량	80.93	91.77	94.14	94.34	2.8	0.2
기말재고량	123.70	107.33	109.06	101.33	△5.6	△7.1
기말재고율	17.6	14.9	14.2	13.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5. 대두

2007/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034만 톤으로 전년대비 6.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생산량은 5.9%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는 각각 18.9%, 10.6%, 0.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6/07년 2억 2,466만 톤보다 1,060만 톤 늘어난 2억 3,52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EU의 소비량이 각각 14.1%, 6.0%, 2.1%,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7,55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5.8%, 브라질이 39.3%, 아르헨티나가 14.8%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은 전년대비 11.0%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26.4%, 17.8%씩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4,62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158만 톤과 비교하여 24.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7.7% 포인트 낮은 19.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0.44	235.57	221.59	220.34	△6.5	△0.6
공 급 량	267.85	288.40	282.70	281.92	△2.2	△0.3
소 비 량	215.17	224.66	235.20	235.26	4.7	0.0
교 역 량	63.99	70.96	75.44	75.54	6.5	0.1
기말재고량	52.83	61.58	47.32	46.24	△24.9	△2.3
기말재고율	24.6	27.4	20.1	19.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6. 대두박

2007/08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145만 톤으로 전년보다 5.2%, 소비량은 1억 5,924만 톤으로 전년보다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5,74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가 51.4%, 브라질 20.9%, 미국이 13.3%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42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45.55	153.48	161.31	161.45	5.2	0.1
공 급 량	151.99	158.98	166.72	166.85	5.0	0.1
소 비 량	145.78	151.08	159.51	159.24	5.4	△0.2
교 역 량	51.42	54.08	57.29	57.40	6.1	0.2
기말재고량	5.50	5.40	5.38	5.42	0.4	0.7
기말재고율	3.8	3.6	3.4	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2.33	494.51	496.11	496.19	0.3	0.0
기초재고량	74.73	76.87	75.63	75.57	△1.7	△0.1
생산량	417.60	417.64	420.48	420.62	0.7	0.0
미국	7.11	6.24	6.33	6.31	1.1	△0.3
태국	18.20	18.25	18.40	18.60	1.9	1.1
베트남	22.77	22.89	23.26	23.26	1.6	0.0
인도네시아	34.96	33.30	34.00	34.00	2.1	0.0
중국	126.41	127.80	129.50	129.50	1.3	0.0
일본	8.26	7.79	7.94	7.94	1.9	0.0
수입량	26.13	28.17	27.94	27.51	△2.3	△1.5
인도네시아	0.54	1.90	1.60	1.60	△15.8	0.0
중국	0.65	0.60	0.70	0.60	0.0	△14.3
일본	0.67	0.65	0.70	0.70	7.7	0.0
소비량	415.46	418.95	423.93	423.65	1.1	△0.1
미국	3.84	4.05	3.99	3.99	△1.5	0.0
태국	9.54	9.87	9.60	9.60	△2.7	0.0
베트남	18.39	18.67	18.72	18.72	0.3	0.0
인도네시아	35.74	35.55	36.15	36.15	1.7	0.0
중국	128.00	127.80	129.10	129.10	1.0	0.0
일본	8.25	8.25	8.15	8.15	△1.2	0.0
수출량	30.16	29.25	29.86	29.26	0.0	△2.0
미국	3.66	2.94	3.49	3.49	18.7	0.0
태국	7.38	9.50	9.00	9.00	△5.3	0.0
베트남	4.71	4.60	5.00	5.00	8.7	0.0
기말재고량	76.87	75.57	72.17	72.54	△4.0	0.5
미국	1.37	1.27	0.80	0.79	△37.8	△1.3
태국	3.59	2.48	2.39	2.49	0.4	4.2
베트남	1.32	1.39	1.39	1.39	0.0	0.0
인도네시아	3.21	2.86	2.31	2.31	△19.2	0.0
중국	36.78	36.08	35.58	35.78	△0.8	0.6
일본	2.40	2.38	2.67	2.67	12.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2.08	741.31	726.61	727.38	△1.9	0.1
기초재고량	150.62	147.65	124.30	124.38	△15.8	0.1
생산량	621.46	593.66	602.31	603.00	1.6	0.1
미국	57.28	49.32	56.25	56.25	14.1	0.0
호주	25.17	9.90	13.00	13.00	31.3	0.0
캐나다	25.75	25.27	20.05	20.05	△20.7	0.0
EU27	132.36	124.81	120.50	119.77	△4.0	△0.6
중국	97.45	104.47	106.00	106.00	1.5	0.0
러시아	47.70	44.90	48.00	49.40	10.0	2.9
수입량	110.15	112.37	103.37	103.90	△7.5	0.5
EU27	6.76	5.14	6.50	6.50	26.5	0.0
브라질	6.72	7.75	7.00	7.00	△9.7	0.0
북아프리카	18.56	16.30	17.55	17.55	7.7	0.0
파키스탄	0.95	0.06	0.50	1.00	1566.7	100.0
인도	0.03	6.71	2.00	2.00	△70.2	0.0
러시아	1.28	0.86	1.00	1.00	16.3	0.0
소비량	624.43	616.93	616.55	616.45	△0.1	0.0
미국	31.36	31.04	31.52	31.19	0.5	△1.0
EU27	127.53	125.50	120.70	120.20	△4.2	△0.4
중국	101.00	101.00	100.50	100.50	△0.5	0.0
파키스탄	21.50	21.90	22.40	22.40	2.3	0.0
러시아	38.40	36.40	37.20	38.20	4.9	2.7
수출량	116.16	110.69	104.78	104.68	△5.4	△0.1
미국	27.29	24.73	31.98	31.98	29.3	0.0
캐나다	16.00	19.64	14.00	14.00	△28.7	0.0
EU27	15.69	13.87	9.00	9.00	△35.1	0.0
기말재고량	147.65	124.38	110.06	110.93	△10.8	0.8
미국	15.55	12.41	7.62	7.94	△36.0	4.2
EU27	23.39	13.96	11.26	11.03	△21.0	△2.0
중국	34.89	35.96	38.66	39.11	8.8	1.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27.73	827.55	875.48	874.05	5.6	△0.2
기초재고량	131.36	123.70	106.17	107.33	△13.2	1.1
생산량	696.37	703.85	769.31	766.72	8.9	△0.3
미국	282.31	267.60	334.48	332.09	24.1	△0.7
아르헨티나	15.80	22.50	22.50	22.50	0.0	0.0
EU27	61.16	54.65	47.26	47.37	△13.3	0.2
멕시코	19.50	22.00	23.20	23.20	5.5	0.0
동남아시아	16.46	16.81	17.03	17.03	1.3	0.0
중국	139.36	145.48	145.00	145.00	△0.3	0.0
수입량	79.47	90.93	91.75	92.15	1.3	0.4
이집트	4.40	4.80	4.50	4.50	△6.3	0.0
EU27	2.63	7.06	9.50	10.00	41.6	5.3
일본	16.62	16.71	16.30	16.30	△2.5	0.0
멕시코	6.79	8.94	10.20	10.20	14.1	0.0
동남아시아	4.40	4.06	4.20	4.20	3.4	0.0
한국	8.49	8.74	8.80	8.80	0.7	0.0
소비량	704.03	720.22	766.43	772.72	7.3	0.8
미국	232.06	230.79	260.11	266.84	15.6	2.6
EU27	61.50	61.10	61.00	61.60	0.8	1.0
일본	16.70	16.50	16.50	16.50	0.0	0.0
멕시코	27.90	30.30	33.30	33.30	9.9	0.0
동남아시아	20.25	20.55	21.35	21.35	3.9	0.0
한국	8.58	8.83	8.90	8.90	0.8	0.0
중국	137.00	143.00	148.00	148.00	3.5	0.0
수출량	80.93	91.77	94.14	94.34	2.8	0.2
미국	54.20	53.97	62.23	62.23	15.3	0.0
아르헨티나	9.46	15.30	16.00	16.00	4.6	0.0
중국	3.73	5.27	1.50	1.00	△81.0	△33.3
기말재고량	123.70	107.33	109.06	101.33	△5.6	△7.1
미국	49.97	33.11	45.63	36.52	10.3	△20.0
아르헨티나	1.16	1.66	1.46	1.46	△12.0	0.0
EU27	9.95	9.90	5.31	5.36	△45.9	0.9
중국	35.26	32.48	28.08	28.58	△12.0	1.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67.85	288.40	282.70	281.92	△2.2	△0.3
기초재고량	47.41	52.83	61.11	61.58	16.6	0.8
생산량	220.44	235.57	221.59	220.34	△6.5	△0.6
미국	83.37	86.77	70.61	70.36	△18.9	△0.4
아르헨티나	40.50	47.20	47.00	47.00	△0.4	0.0
브라질	57.00	59.00	62.00	62.50	5.9	0.8
중국	16.35	16.00	14.30	14.30	△10.6	0.0
수입량	64.15	68.79	75.26	75.11	9.2	△0.2
중국	28.32	28.73	34.00	34.00	18.3	0.0
EU27	13.95	15.29	15.25	15.45	1.0	1.3
일본	3.96	4.09	4.15	4.15	1.5	0.0
소비량	215.17	224.66	235.20	235.26	4.7	0.0
미국	52.61	53.20	54.25	54.30	2.1	0.1
아르헨티나	33.34	35.09	40.06	40.04	14.1	0.0
브라질	31.17	33.63	32.68	32.68	△2.8	0.0
중국	44.54	45.63	48.35	48.35	6.0	0.0
EU27	14.97	16.00	16.22	16.42	2.6	1.2
일본	4.19	4.31	4.33	4.33	0.5	0.0
멕시코	3.86	3.99	4.05	4.05	1.5	0.0
수출량	63.99	70.96	75.44	75.54	6.5	0.1
미국	25.58	30.43	27.08	27.08	△11.0	0.0
아르헨티나	7.25	9.51	10.50	11.20	17.8	6.7
브라질	25.91	23.49	30.69	29.69	26.4	△3.3
기말재고량	52.83	61.58	47.32	46.24	△24.9	△2.3
미국	12.23	15.62	5.03	4.76	△69.5	△5.4
아르헨티나	16.47	21.05	19.60	18.92	△10.1	△3.5
브라질	16.73	18.67	17.41	16.91	△9.4	△2.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12	2008.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1.99	158.98	166.72	166.85	5.0	0.1
기초재고량	6.44	5.50	5.41	5.40	△1.8	△0.2
생산량	145.55	153.48	161.31	161.45	5.2	0.1
미국	37.42	39.03	39.45	39.45	1.1	0.0
아르헨티나	25.01	26.06	30.23	30.23	16.0	0.0
브라질	21.84	23.68	23.00	23.00	△2.9	0.0
인도	4.77	5.27	6.25	6.25	18.6	0.0
중국	27.30	28.10	30.15	30.15	7.3	0.0
수입량	50.71	51.59	55.46	55.22	7.0	△0.4
EU27	22.82	22.13	23.40	23.40	5.7	0.0
중국	0.84	0.03	0.85	0.40	1233.3	△52.9
소비량	145.78	151.08	159.51	159.24	5.4	△0.2
미국	30.11	31.17	32.02	32.02	2.7	0.0
아르헨티나	0.57	0.56	0.64	0.64	14.3	0.0
브라질	9.60	10.87	11.24	11.24	3.4	0.0
인도	1.66	1.95	2.27	2.23	14.4	△1.8
EU27	32.76	33.04	34.51	34.64	4.8	0.4
중국	27.78	27.27	30.35	30.00	10.0	△1.2
수출량	51.42	54.08	57.29	57.40	6.1	0.2
미국	7.30	7.97	7.62	7.62	△4.4	0.0
아르헨티나	24.20	25.59	29.49	29.49	15.2	0.0
브라질	12.90	12.72	12.00	12.00	△5.7	0.0
인도	3.68	3.46	4.00	4.00	15.6	0.0
기말재고량	5.50	5.40	5.38	5.42	0.4	0.7
미국	0.29	0.32	0.27	0.27	△15.6	0.0
아르헨티나	1.67	1.59	1.68	1.68	5.7	0.0
브라질	1.12	1.38	1.36	1.36	△1.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4, January 11, 2008.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¹⁾	소비량 ²⁾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682	242,060	203,144	25,343	38,916	19.2
2006/07(E)	199,193	238,109	204,466	25,518	33,643	16.5
2007/08(P)	207,521	241,162	210,254	25,332	30,909	14.7

주 :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8. 1)

성명환*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국제 현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미국 농업부(USDA)가 2008년 1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한 톤당 584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2.1% 상승한 톤당 372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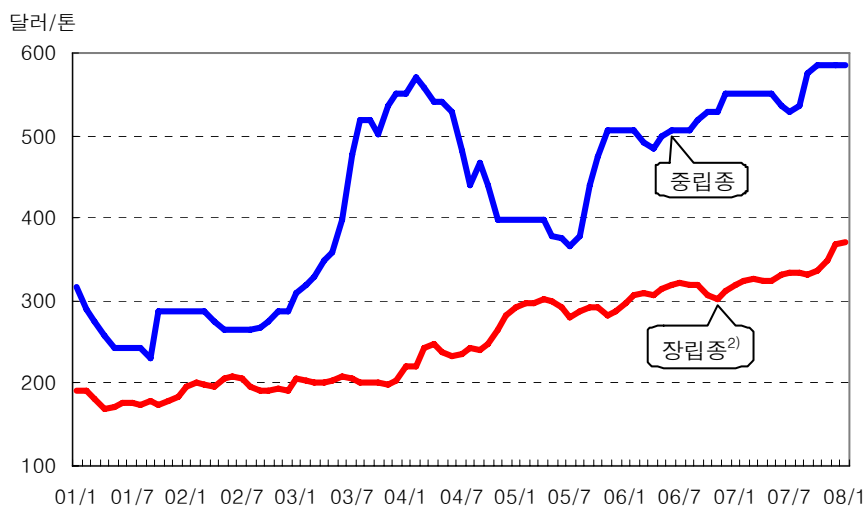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hsung@krei.re.kr 02-3299-4366

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8년 1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한 톤당 584달러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7/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2008년 1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톤당 372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2.1%, 전월대비 3.4% 상승하였다. 최근 태국, 중국 등 국내 쌀 수요가 늘자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2008년도 가격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가격 동향



주 :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 USDA, 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5/06	2006/07	2007.1	2007.12	2008.1	증감률(%)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미 국	남부 장립종 ⁽¹⁾	334	407	420	496	513	22.1	3.4
	CA 중립종 ⁽¹⁾	484	538	551	584	584	6.0	0.0
태 국 ⁽²⁾	301	320	320	368	372	16.3	1.1	
베 트 남 ⁽³⁾	259	292	na	na	na	-	-	

주 :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USDA, *Rice Outlook*, January 14, 2008.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4년 4월 톤당 20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14일 현재 톤당 332달러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51.6%, 전월대비 10.3% 상승하였다.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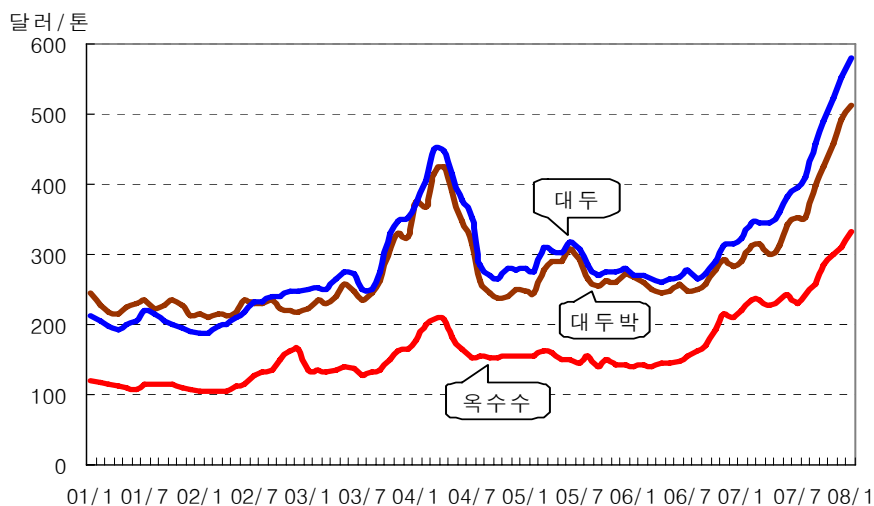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14일 현재 톤당 5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월대비 80.7%, 전월대비 4.9% 상승하였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1월 14일 현재 톤당 513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월대비 77.5%, 전월대비 4.3% 상승하였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7년 12월에는 11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 한국사료협회 2008년 1월 14일 기준 가격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C&F

품 목	2005 평균	2006 평균	2007.1	2007.12	2008.1	증감률(%)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옥 수 수	150	164	219	301	332	51.6	10.3
대 두	290	278	321	553	580	80.7	4.9
대 두 박	272	261	289	492	513	77.5	4.3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1월 14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8년 1월 14일 현재 캔사스 상품거래소(KCBOT)의 2008년 3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91.6% 상승한 톤당 343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8년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1.2% 상승한 톤당 202달러, 2008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4.9% 상승한 톤당 477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소맥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3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1월 14일 현재 톤당 34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6%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2.0% 하락하였다. 2007/08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소맥 재고량은 1977/7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국제 소맥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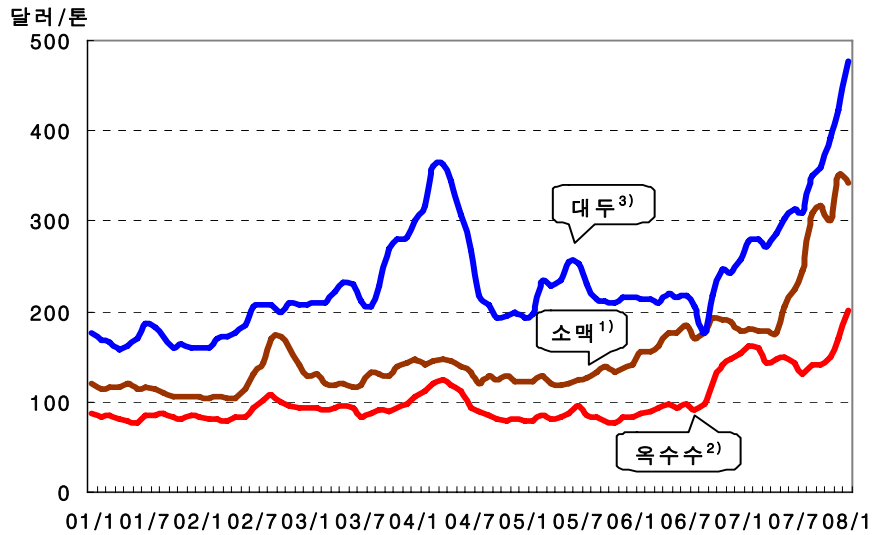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3월물 인도분이 2008년 1월 14일 현재 톤당 202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1.2%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소비량도 늘어나고 재고량이 줄어들어 2007/08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8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2008년 1월 14일 현재 톤당 477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84.9%, 전월대비 12.8%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대두 생산량과 공급량이 줄어들고 기말재고량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 · 옥수수 · 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 (1) 소맥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 · 옥수수 · 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5/06	2006/07	2007.1	2007.12	2008.1	증감률(%)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소 맥 ⁽¹⁾	142	181	179	350	343	91.6	△2.0
옥수수 ⁽²⁾	88	140	154	170	202	31.2	18.8
대 두 ⁽²⁾	214	267	258	423	477	84.9	12.8

주 :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8년 1월 14일 기준 가격임. USDA AMS and ERS.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 · 대두 곡물연도 9~8월. 2008년 1월 14일 기준 가격임. USDA AMS and ER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 ⁽¹⁾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²⁾		태국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주 :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LSMNpubs/PDF_Daily/DGR.pdf



통계자료

세계 쇠고기 통계

표 1 세계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2,946	2,861	2,498	32,654	364	8.8
1971	32,702	2,742	2,338	32,296	370	8.5
1972	33,756	3,282	2,720	33,167	400	8.6
1973	34,552	3,362	2,982	34,090	481	8.7
1974	36,838	2,703	2,420	36,386	748	9.1
1975	40,259	3,185	2,623	39,639	812	9.7
1976	42,135	3,787	2,975	41,163	977	9.9
1977	42,399	4,149	3,474	41,808	917	9.9
1978	42,106	4,321	3,483	41,280	874	9.6
1979	40,254	4,207	3,782	39,740	1,026	9.1
1980	41,351	4,174	3,603	40,857	950	9.2
1981	41,694	4,237	3,556	40,911	1,058	9.1
1982	41,855	4,453	3,621	41,023	1,059	8.9
1983	41,934	4,325	3,727	41,158	1,237	8.8
1984	42,867	4,128	3,579	41,995	1,560	8.8
1985	43,916	4,482	3,603	42,807	1,790	8.8
1986	45,801	4,882	4,197	45,442	1,464	9.2
1987	47,012	4,842	3,971	46,079	1,526	9.2
1988	46,473	6,238	5,051	45,366	1,447	8.9
1989	47,198	6,395	5,421	46,520	1,151	9
1990	48,133	6,302	5,491	46,296	2,217	8.8
1991	49,710	7,190	5,900	48,309	2,495	9
1992	49,000	7,252	5,621	47,293	2,571	8.7
1993	46,864	5,343	3,919	44,598	2,077	8.1
1994	47,479	5,598	4,356	46,679	1,600	8.3
1995	47,990	5,410	4,255	47,050	1,380	8.3
1996	47,042	5,141	4,356	45,951	1,659	8
1997	48,614	5,754	4,980	47,687	1,812	8.2
1998	48,565	5,412	4,741	48,095	1,611	8.1
1999	49,626	5,822	5,131	49,414	819	8.2
2000	49,991	5,839	4,982	49,165	775	8.1
2001	49,658	5,766	5,036	48,689	1,014	7.9
2002	51,241	6,322	5,338	50,327	944	8.1
2003	50,089	6,315	5,170	49,162	681	7.8
2004	51,327	6,414	4,921	49,987	528	7.8
2005	52,454	6,971	5,445	50,998	458	7.9
2006	53,734	7,110	5,333	51,894	521	8
2007	54,489	7,517	5,613	52,540	566	8

표 2 한국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54	0	1	55	0	1.7
1971	48	0	1	49	0	1.5
1972	42	0	1	43	0	1.3
1973	45	2	2	45	0	1.3
1974	49	0	0	49	0	1.4
1975	71	0	0	71	0	2
1976	103	0	1	103	0	2.9
1977	106	0	8	111	3	3
1978	102	0	45	141	8	3.8
1979	118	0	60	172	14	4.6
1980	127	0	2	138	5	3.6
1981	94	0	34	127	6	3.3
1982	83	0	73	148	14	3.8
1983	90	0	67	160	11	4
1984	122	0	28	149	12	3.7
1985	161	0	4	168	9	4.1
1986	208	0	0	205	12	5
1987	206	0	0	210	8	5
1988	175	0	20	196	7	4.7
1989	124	0	83	198	16	4.7
1990	131	0	117	244	20	5.7
1991	136	0	176	308	24	7.1
1992	137	0	183	313	31	7.2
1993	176	0	132	317	22	7.2
1994	200	0	165	372	15	8.3
1995	214	0	229	451	7	10
1996	236	0	221	459	5	10
1997	310	0	233	515	33	11.2
1998	348	0	129	449	61	9.6
1999	305	0	249	549	66	11.7
2000	278	0	333	598	79	12.6
2001	221	0	253	528	25	11.1
2002	192	0	442	619	40	12.9
2003	182	0	457	618	61	12.8
2004	186	0	224	470	1	9.7
2005	195	0	250	443	3	9.1
2006	200	0	298	496	5	10.2
2007	205	0	315	515	10	10.5

표 3 일본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278	0	33	311	0	3
1971	296	0	59	356	0	3.4
1972	317	0	82	400	0	3.7
1973	246	0	182	428	0	3.9
1974	292	0	77	381	34	3.5
1975	353	0	64	411	40	3.7
1976	298	0	130	436	32	3.9
1977	361	0	121	478	36	4.2
1978	403	0	143	541	17	4.7
1979	402	0	185	576	28	5
1980	418	0	174	590	30	5
1981	471	0	174	625	50	5.3
1982	481	0	174	655	50	5.5
1983	495	0	196	686	55	5.8
1984	535	0	208	730	68	6.1
1985	555	0	216	780	59	6.5
1986	559	0	256	830	44	6.8
1987	565	0	315	880	44	7.2
1988	570	0	380	900	94	7.3
1989	548	0	498	986	154	8
1990	549	0	537	1073	167	8.7
1991	574	1	508	1142	106	9.2
1992	592	1	591	1190	98	9.6
1993	593	0	731	1302	120	10.4
1994	602	0	847	1451	118	11.6
1995	601	0	922	1513	128	12.1
1996	555	0	889	1428	144	11.4
1997	530	0	935	1478	131	11.7
1998	530	0	969	1505	125	11.9
1999	537	0	986	1502	146	11.9
2000	530	0	1045	1563	158	12.3
2001	458	0	982	1399	199	11
2002	537	0	697	1304	129	10.3
2003	496	0	833	1348	110	10.6
2004	514	0	634	1169	89	9.2
2005	500	0	686	1186	89	9.3
2006	497	0	678	1159	105	9.1
2007	500	0	715	1210	110	9.5

표 4 중국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298	0	0	298	0	0.3
1976	324	0	0	324	0	0.3
1977	315	0	0	315	0	0.3
1978	310	0	0	310	0	0.3
1979	230	0	0	230	0	0.2
1980	269	0	0	269	0	0.3
1981	249	8	0	241	0	0.2
1982	266	12	0	254	0	0.2
1983	315	16	0	299	0	0.3
1984	373	15	0	358	0	0.3
1985	467	15	0	452	0	0.4
1986	589	26	0	563	0	0.5
1987	793	34	0	759	0	0.7
1988	958	54	0	904	0	0.8
1989	1,072	57	0	1,015	0	0.9
1990	1,256	155	0	1,101	0	1
1991	1,535	222	0	1,313	0	1.1
1992	1,803	75	1	1,729	0	1.5
1993	2,337	155	2	2,184	0	1.8
1994	3,270	238	4	3,036	0	2.5
1995	4,154	107	4	4,051	0	3.3
1996	3,557	105	5	3,457	0	2.8
1997	4,409	90	4	4,323	0	3.5
1998	4,799	84	5	4,720	0	3.8
1999	5,054	50	7	5,011	0	4
2000	5,328	47	9	5,290	0	4.2
2001	5,488	53	6	5,441	0	4.3
2002	5,846	37	16	5,825	0	4.5
2003	6,305	36	12	6,281	0	4.9
2004	6,759	52	5	6,712	0	5.2
2005	7,115	76	2	7,041	0	5.4
2006	7,492	85	2	7,409	0	5.6
2007	7,850	99	5	7,756	0	5.9

표 5 대만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9	0	0	9	0	0.6
1971	8	0	0	8	0	0.5
1972	4	0	1	6	0	0.4
1973	6	0	1	7	0	0.5
1974	5	0	1	6	0	0.4
1975	4	0	26	15	15	0.9
1976	11	0	11	37	0	2.2
1977	16	0	4	20	0	1.2
1978	10	0	12	22	0	1.3
1979	9	0	13	22	0	1.3
1980	5	0	13	18	0	1
1981	5	0	20	25	0	1.4
1982	6	0	24	30	0	1.6
1983	7	0	28	35	0	1.9
1984	6	0	29	35	0	1.8
1985	4	0	33	37	0	1.9
1986	4	0	39	43	0	2.2
1987	4	0	39	43	0	2.2
1988	5	0	46	51	0	2.5
1989	6	0	46	52	0	2.6
1990	5	0	46	51	0	2.5
1991	5	0	54	59	0	2.9
1992	5	0	58	63	0	3
1993	5	0	57	62	0	3
1994	5	0	62	67	0	3.2
1995	6	0	75	81	0	3.8
1996	6	0	67	73	0	3.4
1997	6	0	88	94	0	4.3
1998	5	0	85	90	0	4.1
1999	5	0	96	101	0	4.6
2000	5	0	85	90	0	4.1
2001	5	0	80	85	0	3.8
2002	5	0	91	96	0	4.3
2003	6	0	101	107	0	4.7
2004	5	0	82	87	0	3.8
2005	6	0	95	101	0	4.4
2006	5	0	104	109	0	4.7
2007	5	0	105	110	0	4.8

표 6 홍콩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0	0	29	29	6	6.4
1977	0	0	34	34	6	7.4
1978	0	0	61	61	6	13.1
1979	0	0	55	55	6	11.2
1980	0	0	56	56	6	11.1
1981	0	0	60	60	6	11.6
1982	0	0	67	67	6	12.7
1983	0	0	75	75	6	14
1984	0	0	75	76	5	14.1
1985	0	1	79	77	6	14.1
1986	0	1	79	78	6	14.1
1987	0	1	79	78	6	14
1988	0	1	90	88	7	15.6
1989	0	1	80	80	6	14.1
1990	0	1	81	80	6	14.1
1991	0	1	80	85	0	14.8
1992	39	2	67	104	0	17.8
1993	35	2	48	81	0	13.7
1994	34	2	63	95	0	15.7
1995	28	0	65	93	0	14.9
1996	21	0	59	80	0	12.5
1997	15	0	51	66	0	10.2
1998	19	0	63	82	0	12.5
1999	18	0	71	89	0	13.5
2000	17	0	78	95	0	14.3
2001	15	0	78	93	0	13.8
2002	14	0	87	101	0	14.9
2003	13	0	92	105	0	15.4
2004	14	0	88	102	0	14.9
2005	14	0	95	109	0	15.8
2006	14	0	97	111	0	16
2007	14	0	100	114	0	16.3

표 7 필리핀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80	0	9	89	0	2.3
1971	76	0	9	85	0	2.1
1972	65	0	5	70	0	1.7
1973	239	0	1	240	0	5.7
1974	265	0	3	268	2	6.2
1975	203	0	12	215	2	4.8
1976	76	0	9	85	2	1.9
1977	74	0	18	92	2	2
1978	99	0	18	106	13	2.2
1979	85	0	9	87	20	1.8
1980	90	0	6	91	25	1.8
1981	86	0	8	94	25	1.8
1982	87	0	10	110	12	2.1
1983	86	0	6	102	2	1.9
1984	88	0	1	91	0	1.6
1985	84	0	2	83	3	1.4
1986	95	0	4	97	5	1.6
1987	112	0	6	115	8	1.9
1988	124	0	7	135	4	2.2
1989	132	0	13	143	6	2.3
1990	132	0	16	145	9	2.2
1991	139	0	15	155	8	2.4
1992	131	0	21	158	2	2.4
1993	133	0	25	157	3	2.3
1994	135	0	50	183	5	2.6
1995	139	0	66	203	7	2.8
1996	162	0	0	145	24	2
1997	176	0	103	263	40	3.5
1998	196	0	75	259	52	3.4
1999	202	0	97	295	56	3.8
2000	220	0	122	347	51	4.3
2001	215	0	111	349	28	4.3
2002	220	0	124	372	0	4.5
2003	230	0	127	357	0	4.2
2004	230	0	161	391	0	4.5
2005	225	1	137	361	0	4.1
2006	224	1	136	359	0	4
2007	224	0	160	384	0	4.2

표 8 인도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76	0	0	176	0	0.3
1971	179	0	0	179	0	0.3
1972	181	0	0	181	0	0.3
1973	183	0	0	183	0	0.3
1974	187	5	0	182	0	0.3
1975	604	4	0	600	0	1
1976	609	9	0	600	0	0.9
1977	615	14	0	601	0	0.9
1978	624	17	0	607	0	0.9
1979	635	35	0	600	0	0.9
1980	642	55	0	587	0	0.9
1981	675	60	0	615	0	0.9
1982	710	65	0	645	0	0.9
1983	740	45	0	695	0	0.9
1984	770	50	0	720	0	1
1985	795	45	0	750	0	1
1986	1,631	55	0	1,576	0	2
1987	1,603	60	0	1,543	0	1.9
1988	1,849	65	0	1,784	0	2.2
1989	2,070	70	0	2,000	0	2.4
1990	2,161	85	0	2,076	0	2.5
1991	1,459	129	0	1,330	0	1.6
1992	1,381	149	0	1,232	0	1.4
1993	945	163	0	782	0	0.9
1994	1,025	177	0	848	0	0.9
1995	1,100	196	0	904	0	1
1996	925	204	0	721	0	0.8
1997	1,300	215	0	1,085	0	1.1
1998	1,593	245	0	1,348	0	1.4
1999	1,660	220	0	1,440	0	1.5
2000	1,700	344	0	1,356	0	1.4
2001	1,770	365	0	1,405	0	1.4
2002	1,810	411	0	1,399	0	1.4
2003	1,960	432	0	1,528	0	1.4
2004	2,130	492	0	1,638	0	1.5
2005	2,250	617	0	1,633	0	1.5
2006	2,375	681	0	1,694	0	1.5
2007	2,500	725	0	1,775	0	1.6

표 9 터키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84	0	0	184	0	5.2
1971	165	0	0	165	0	4.5
1972	145	0	0	145	0	3.9
1973	161	0	0	161	0	4.2
1974	200	0	0	205	20	5.2
1975	213	0	0	213	20	5.3
1976	180	0	0	190	10	4.6
1977	199	0	0	194	15	4.6
1978	163	0	0	168	10	3.9
1979	225	0	0	220	15	5
1980	200	0	0	205	10	4.5
1981	201	2	0	200	9	4.3
1982	210	12	0	197	10	4.2
1983	220	13	0	202	15	4.2
1984	225	13	0	217	10	4.4
1985	230	4	37	243	30	4.8
1986	235	1	24	260	28	5
1987	430	1	23	460	20	8.7
1988	457	1	12	478	10	8.9
1989	561	1	6	561	15	10.2
1990	518	1	10	527	15	9.4
1991	516	0	25	536	20	9.4
1992	550	0	30	567	33	9.8
1993	566	1	32	592	38	10
1994	574	0	9	598	23	9.9
1995	623	0	42	630	58	10.3
1996	595	0	12	600	65	9.7
1997	590	0	0	593	62	9.4
1998	605	0	0	610	57	9.5
1999	615	0	0	620	52	9.6
2000	625	0	0	630	47	9.6
2001	640	0	0	640	47	9.6
2002	646	0	0	640	53	9.5
2003	635	0	0	640	48	9.4
2004	625	0	0	635	38	9.2
2005	620	0	0	625	33	9
2006	615	0	0	620	28	8.8
2007	615	0	0	615	28	8.6

표 10 호주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002	510	0	500	29	39.5
1971	1,104	574	0	524	35	40.5
1972	1,329	780	0	538	46	40.8
1973	1,514	920	0	587	53	43.9
1974	1,279	530	0	753	49	55.4
1975	1,703	777	0	926	49	67.2
1976	1,899	905	0	974	69	70
1977	2,158	1,138	0	997	92	70.8
1978	2,131	1,199	0	933	91	65.5
1979	1,770	1,096	0	711	54	49.3
1980	1,534	883	0	659	46	45.1
1981	1,421	711	0	712	44	47.7
1982	1,676	942	0	745	33	49.1
1983	1,412	767	0	650	28	42.2
1984	1,248	616	0	625	35	40.1
1985	1,338	690	0	639	44	40.5
1986	1,478	807	0	665	50	41.5
1987	1,549	908	0	639	52	39.3
1988	1,533	890	0	662	33	40.1
1989	1,565	872	0	700	26	41.7
1990	1,718	1,064	0	651	29	38.2
1991	1,735	1,080	0	654	30	37.9
1992	1,838	1,191	5	646	36	37
1993	1,806	1,169	5	634	44	35.8
1994	1,829	1,140	8	697	44	39
1995	1,717	1,109	9	639	22	35.3
1996	1,736	1,026	7	705	34	38.4
1997	1,942	1,165	6	774	43	41.7
1998	1,989	1,247	5	733	57	39
1999	1,956	1,249	4	742	26	39.1
2000	1,988	1,316	4	666	36	34.8
2001	2,049	1,376	4	675	38	34.9
2002	2,089	1,343	4	718	70	36.7
2003	2,073	1,241	6	808	100	41
2004	2,081	1,369	9	771	50	38.7
2005	2,102	1,388	11	759	16	37.8
2006	2,183	1,430	9	747	31	36.9
2007	2,261	1,450	6	757	91	37

표 11 유럽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8,240	1,228	499	6,574	937	17.8
1994	7,846	1,220	532	7,579	516	20.4
1995	7,964	1,199	422	7,356	347	19.7
1996	7,950	1,101	395	6,883	708	18.4
1997	7,889	1,092	459	7,047	917	18.8
1998	7,624	780	414	7,372	803	19.6
1999	8,803	1,018	449	8,659	96	23
2000	8,492	663	429	8,324	30	22
2001	8,346	610	417	7,874	309	20.8
2002	8,397	580	532	8,416	242	22.2
2003	8,304	438	549	8,596	61	22.6
2004	8,245	363	641	8,582	2	22.5
2005	8,090	253	711	8,550	0	22.4
2006	8,060	216	717	8,561	0	22.4
2007	8,000	175	725	8,550	0	22.3

표 12 러시아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4,150	0	1,074	5,224	0	35.6
1989	4,256	0	1,079	5,335	0	36.2
1990	4,329	0	1,095	4,905	519	33.1
1991	3,989	4	1,035	5,060	479	34.1
1992	3,632	4	494	4,165	436	28.1
1993	3,300	2	407	3,863	278	26
1994	3,240	4	541	3,791	264	25.5
1995	2,734	5	612	3,402	203	22.9
1996	2,570	5	876	3,464	180	23.4
1997	2,326	15	998	3,414	75	23.1
1998	2,090	7	724	2,882	0	19.5
1999	1,900	3	767	2,664	0	18.1
2000	1,840	7	407	2,240	0	15.3
2001	1,760	7	639	2,392	0	16.4
2002	1,740	7	708	2,441	0	16.8
2003	1,670	10	709	2,369	0	16.4
2004	1,590	9	719	2,300	0	16
2005	1,525	11	978	2,492	0	17.4
2006	1,430	8	939	2,361	0	16.6
2007	1,380	8	1,050	2,422	0	17.1

표 13 미국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0,103	18	824	10,917	157	53.2
1971	10,184	24	797	10,944	170	52.7
1972	10,374	28	905	11,249	172	53.6
1973	9,808	41	917	10,647	209	50.2
1974	10,715	29	747	11,453	189	53.6
1975	11,271	24	808	12,080	164	55.9
1976	12,166	41	950	13,024	215	59.7
1977	11,844	47	890	12,754	148	57.9
1978	11,279	74	1,053	12,160	246	54.6
1979	9,924	78	1,103	10,982	213	48.8
1980	9,998	80	946	10,877	200	47.8
1981	10,354	100	799	11,097	156	48.2
1982	10,425	115	889	11,176	179	48.1
1983	10,748	125	873	11,476	199	49
1984	10,929	152	838	11,594	220	49
1985	10,997	151	948	11,819	195	49.6
1986	11,292	239	978	12,036	190	50
1987	10,884	277	1,040	11,660	177	48
1988	10,880	313	1,092	11,643	193	47.5
1989	10,633	464	988	11,196	154	45.3
1990	10,464	456	1,069	11,048	183	44.2
1991	10,534	539	1,091	11,076	193	43.7
1992	10,613	601	1,107	11,146	166	43.4
1993	10,584	578	1,089	11,019	242	42.3
1994	11,194	731	1,075	11,528	252	43.8
1995	11,585	826	954	11,726	239	44
1996	11,749	851	940	11,903	174	44.1
1997	11,714	969	1,063	11,768	214	43.1
1998	11,804	985	1,199	12,051	181	43.6
1999	12,124	1,094	1,303	12,325	189	44.1
2000	12,298	1,120	1,375	12,502	240	44.3
2001	11,983	1,029	1,435	12,351	278	43.3
2002	12,427	1,110	1,459	12,737	317	44.3
2003	12,039	1,142	1,363	12,340	237	42.5
2004	11,261	209	1,669	12,667	291	43.2
2005	11,318	317	1,632	12,663	261	42.8
2006	11,981	519	1,399	12,834	288	43
2007	11,969	650	1,471	12,815	263	42.5

표 14 캐나다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851	54	101	899	22	41.3
1971	889	52	78	919	18	41.7
1972	922	41	97	973	23	43.7
1973	906	40	103	966	26	42.8
1974	953	26	86	1,017	22	44.5
1975	1,088	20	87	1,153	24	49.7
1976	1,166	59	143	1,237	37	52.6
1977	1,142	51	89	1,190	27	50
1978	1,063	46	102	1,118	28	46.5
1979	948	53	87	982	28	40.5
1980	971	65	81	987	28	40.1
1981	1,014	79	81	1,027	17	41.2
1982	1,025	83	88	1,033	14	41
1983	1,033	82	92	1,038	19	40.8
1984	990	106	115	1,001	17	39
1985	1,029	117	115	1,025	19	39.5
1986	1,035	104	112	1,048	14	40
1987	977	93	135	1,021	12	38.5
1988	973	86	153	1,033	19	38.4
1989	980	108	158	1,032	17	37.7
1990	924	110	185	1,002	14	36.1
1991	867	109	217	973	16	34.6
1992	898	159	221	960	16	33.7
1993	860	206	263	909	24	31.4
1994	903	244	279	931	31	31.8
1995	928	245	245	934	25	31.5
1996	998	319	228	909	23	30.3
1997	1,075	412	267	930	23	30.7
1998	1,150	461	256	942	26	30.8
1999	1,238	530	280	982	32	31.7
2000	1,246	563	290	979	26	31.3
2001	1,262	619	330	966	33	30.6
2002	1,294	657	340	977	33	30.6
2003	1,184	413	304	1,059	49	32.9
2004	1,496	603	123	1,023	42	31.5
2005	1,523	596	151	1,079	41	32.9
2006	1,391	477	180	1,086	49	32.8
2007	1,345	480	225	1,090	49	32.6

표 15 멕시코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590	52	1	539	0	10.2
1971	581	49	1	533	0	9.8
1972	625	58	1	568	0	10.2
1973	664	38	1	627	0	10.9
1974	700	20	0	680	0	11.5
1975	1,038	21	1	1,018	0	16.8
1976	1,079	35	1	1,045	0	16.8
1977	990	45	1	946	0	14.8
1978	1,038	45	1	994	0	15.2
1979	1,116	6	2	1,112	0	16.6
1980	1,209	1	1	1,209	0	17.7
1981	1,271	1	9	1,279	0	18.3
1982	1,381	13	18	1,386	0	19.4
1983	1,229	13	12	1,228	0	16.7
1984	1,323	0	0	1,323	0	17.6
1985	1,339	0	7	1,346	0	17.5
1986	1,200	1	1	1,200	0	15.3
1987	1,205	0	4	1,209	0	15.1
1988	1,754	0	15	1,769	0	21.6
1989	2,140	4	40	2,176	0	26.1
1990	1,790	5	60	1,845	0	21.7
1991	1,580	4	120	1,696	0	19.6
1992	1,660	1	130	1,789	0	20.3
1993	1,710	2	135	1,843	0	20.5
1994	1,810	2	166	1,974	0	21.6
1995	1,850	4	58	1,904	0	20.5
1996	1,800	7	105	1,898	0	20.1
1997	1,795	6	209	1,998	0	20.8
1998	1,800	6	316	2,110	0	21.7
1999	1,900	8	369	2,261	0	22.9
2000	1,900	12	433	2,321	0	23.2
2001	1,925	10	438	2,353	0	23.2
2002	1,930	10	503	2,423	0	23.6
2003	1,950	12	381	2,319	0	22.4
2004	2,099	19	296	2,376	0	22.6
2005	2,125	32	335	2,428	0	22.9
2006	2,175	39	383	2,519	0	23.4
2007	2,200	45	400	2,555	0	23.5

표 16 브라질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845	124	1	1,722	0	18
1971	1,825	158	7	1,674	0	17
1972	2,020	228	1	1,794	0	17.8
1973	2,450	170	2	2,281	0	22.1
1974	2,100	102	53	2,051	0	19.3
1975	2,150	101	29	2,077	0	19.1
1976	2,230	156	27	2,100	0	18.8
1977	2,450	191	35	2,294	0	20.1
1978	2,200	130	118	2,187	0	18.7
1979	2,100	110	114	2,104	0	17.5
1980	3,285	189	64	3,160	0	25.7
1981	3,428	315	60	3,073	100	24.4
1982	3,586	398	20	3,258	50	25.3
1983	3,495	450	30	3,095	30	23.5
1984	3,677	508	21	3,210	10	23.8
1985	3,708	537	48	3,209	20	23.4
1986	3,840	389	528	3,999	0	28.5
1987	4,730	321	164	4,520	53	31.6
1988	4,787	579	24	4,270	15	29.3
1989	4,937	345	218	4,815	10	32.4
1990	5,008	249	255	5,014	10	33.2
1991	5,481	335	108	5,249	15	34.2
1992	5,725	442	114	5,392	20	34.6
1993	5,650	376	33	5,297	30	33.4
1994	5,730	312	104	5,502	50	34.2
1995	6,080	228	151	5,993	60	36.6
1996	6,150	224	181	6,147	20	37
1997	6,050	231	148	5,977	10	35.5
1998	6,140	304	104	5,945	5	34.8
1999	6,270	461	53	5,865	2	33.8
2000	6,520	488	71	6,105	0	34.8
2001	6,895	741	44	6,198	0	34.9
2002	7,240	872	77	6,445	0	35.8
2003	7,385	1,162	62	6,285	0	34.5
2004	7,975	1,610	52	6,417	0	34.9
2005	8,592	1,845	48	6,795	0	36.5
2006	9,020	2,084	28	6,964	0	37
2007	9,470	2,400	25	7,095	0	37.3

표 17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2,624	715	0	1,956	28	81.6
1971	2,001	477	0	1,507	45	61.9
1972	2,191	703	0	1,485	48	59.9
1973	2,149	551	0	1,613	33	64
1974	2,163	289	0	1,857	50	72.4
1975	2,439	262	0	2,173	54	83.3
1976	2,811	527	0	2,277	61	85.8
1977	2,914	583	0	2,309	83	85.6
1978	3,146	740	0	2,434	55	88.7
1979	3,020	697	0	2,322	56	83.2
1980	2,839	469	0	2,391	35	84.3
1981	2,939	486	0	2,420	68	83.8
1982	2,551	522	14	2,031	80	69.2
1983	2,390	415	5	1,975	85	66.3
1984	2,558	250	0	2,308	85	76.3
1985	2,750	260	1	2,490	86	81.2
1986	2,870	256	0	2,620	80	84.1
1987	2,700	287	0	2,413	80	76.3
1988	2,610	320	0	2,304	66	71.8
1989	2,600	360	0	2,250	56	69.1
1990	2,650	451	0	2,220	35	67.2
1991	2,650	390	2	2,280	17	68.1
1992	2,520	296	16	2,232	25	65.7
1993	2,550	268	9	2,292	24	66.6
1994	2,600	384	6	2,225	21	63.8
1995	2,600	535	5	2,064	27	58.5
1996	2,580	496	10	2,095	26	58.6
1997	2,975	454	14	2,541	20	70.2
1998	2,600	300	41	2,334	27	63.7
1999	2,840	355	19	2,504	27	67.5
2000	2,880	354	18	2,545	26	67.9
2001	2,640	168	17	2,515	0	66.3
2002	2,700	345	9	2,364	0	61.7
2003	2,800	382	12	2,430	0	62.7
2004	3,130	616	5	2,519	0	64.3
2005	3,200	754	5	2,451	0	62
2006	3,100	552	5	2,553	0	64
2007	3,175	525	5	2,655	0	65.9

표 18 우루과이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79	167	0	212	0	75.1
1971	289	91	0	198	0	70.1
1972	287	114	0	173	0	61.1
1973	297	118	0	179	0	63.2
1974	320	120	0	200	0	70.5
1975	345	113	0	232	0	81.6
1976	405	195	0	210	0	73.5
1977	363	129	0	234	0	81.4
1978	354	112	0	242	0	83.8
1979	266	81	4	189	0	65.1
1980	336	117	0	219	0	75
1981	407	173	0	234	0	79.7
1982	383	169	0	214	0	72.4
1983	412	225	0	187	0	62.9
1984	295	131	0	164	0	54.9
1985	342	120	0	195	27	64.8
1986	358	187	0	179	19	59.1
1987	277	93	0	182	21	59.8
1988	321	132	0	195	15	63.6
1989	376	177	0	193	21	62.6
1990	349	192	0	178	0	57.3
1991	315	117	0	198	0	63.3
1992	365	123	0	242	0	76.8
1993	309	105	0	204	0	64.3
1994	368	131	0	237	0	74.2
1995	344	149	0	195	0	60.6
1996	410	0	0	410	0	126.6
1997	468	251	0	217	0	66.5
1998	454	218	1	237	0	72.2
1999	425	189	0	236	0	71.4
2000	440	236	0	204	0	61.4
2001	317	145	0	172	0	51.4
2002	425	225	3	203	0	60.4
2003	450	282	0	168	0	49.7
2004	544	354	2	192	0	56.5
2005	600	417	7	190	0	55.6
2006	640	460	4	184	0	53.6
2007	590	400	3	193	0	56

표 19 남아프리카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492	27	55	520	20	22.9
1971	525	35	57	547	20	23.4
1972	577	59	55	573	20	23.9
1973	607	73	67	601	20	24.5
1974	527	41	78	564	20	22.4
1975	492	24	51	519	20	20.1
1976	537	30	36	543	20	20.5
1977	580	32	65	613	20	22.6
1978	629	41	28	616	20	22.1
1979	679	47	14	646	20	22.7
1980	733	26	35	742	20	25.4
1981	616	18	23	621	20	20.6
1982	625	14	18	629	20	20.2
1983	653	5	22	639	51	19.9
1984	669	2	22	677	63	20.4
1985	638	2	22	676	45	19.7
1986	616	3	25	675	8	19.2
1987	583	1	48	638	0	17.8
1988	553	1	68	614	6	16.7
1989	582	1	58	638	7	17
1990	661	1	33	690	10	18
1991	700	1	29	728	10	18.6
1992	745	1	22	752	24	18.8
1993	691	3	29	741	0	18.2
1994	581	2	83	662	0	16.1
1995	542	37	60	565	0	13.5
1996	525	10	69	584	0	13.8
1997	591	5	68	654	0	15.3
1998	539	10	22	551	0	12.7
1999	584	9	24	599	0	13.7
2000	630	6	18	642	0	14.6
2001	665	14	7	658	0	14.8
2002	645	16	6	635	0	14.3
2003	613	10	14	617	0	13.9
2004	655	13	23	665	0	15
2005	679	7	29	701	0	15.8
2006	725	7	27	745	0	16.9
2007	670	7	30	693	0	15.8

표 20 이집트 쇠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230	0	7	237	0	6.4
1976	229	0	36	265	0	7
1977	273	0	34	307	0	7.9
1978	272	0	46	318	0	8
1979	273	0	73	346	0	8.4
1980	280	0	95	375	0	8.8
1981	301	0	120	421	0	9.5
1982	327	0	108	435	0	9.5
1983	333	0	139	472	0	10
1984	349	0	160	509	0	10.5
1985	337	0	141	478	0	9.6
1986	365	0	176	541	0	10.5
1987	384	0	170	554	0	10.5
1988	381	0	150	531	0	9.8
1989	386	0	181	567	0	10.3
1990	408	0	120	528	0	9.3
1991	426	1	85	510	0	8.8
1992	410	1	108	517	0	8.7
1993	364	7	180	537	0	8.8
1994	392	1	176	567	0	9.2
1995	402	1	149	550	0	8.7
1996	426	1	136	561	0	8.7
1997	426	0	167	593	0	9
1998	445	0	162	607	0	9
1999	400	0	221	621	0	9
2000	442	0	228	670	0	9.5
2001	437	0	147	584	0	8.1
2002	442	0	178	620	0	8.5
2003	440	0	127	567	0	7.6
2004	455	0	173	628	0	8.2
2005	508	0	221	729	0	9.4
2006	465	0	291	756	0	9.6
2007	410	0	250	660	0	8.2

참고자료

<http://www.fas.usda.gov/psd>

M45-89 세계농업뉴스 제89호 (2008. 1)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8년 1월

발 행 2008년 1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